

6 2025 VOL. 348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회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1991-2025

 PT. BOSUNG INDONESIA

34년의 경험으로

고객의 미래를 포장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월간 한인뉴스 6 2025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김종현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김종현

편집인 양대화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김영섭
송기섭, 노병진, 송호진, 고평희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0812-1960-308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오늘 비가 세차게 내려 투표하러 가는 길이 많이 막혀 조금 불편했지만 재외국민으로서 한 표 행사하고 투표장을 나오니 곳은 날씨와는 달리 마음은 환해졌습니다. 저희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훌륭한 대통령 선출에 보탬이 되길 희망합니다.
김상용, 김경주 배상
2025. 5. 21.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소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150호 한인사회 역사를 쓴
홍석영 편집장의 담담한 퇴장

8

[제21대 대선] 인도네시아동포 4,391명
투표로 81.05% 최고 기록

10

[김재훈의 '세무 TALK']

직원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PMK66/2023

11

[디카시 풍경] 정
<김준규>

12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인도네시아>



contents

2025. 6. 통권 348호

16

‘2025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18

[여기가 맛집] Wabi-Sabi
Restaurant
〈황지영〉

21

[숨씨에 반하다] 바람 부는 날
〈김수남〉

22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22]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25

[조연숙 칼럼]
‘자무’ - 전통과 현대의 조화

28

[서상영의 한방칼럼 26]
생활 한의학 9 무기력증

32

[자카르타의 아침]
골프 에티켓과 매너 〈손상현〉

36

[행복에세이] 시간과 함께
〈김준규〉

38

[이영미 인터뷰 2.0] 키움증권 -
신창근 법인장

44

Hyaang the Yoga 9
〈Michelle〉

48

[취미부자 열정교수]
매일 열리는 소소한 전시회
〈김 루치아〉

50

[아중의 코-인사이트]
나의 첫 한국 회사 도전기 〈윌루증〉

54

[반려동물 랜선집사]
나도 나 예쁜 거 알아 〈강효정 가족〉

56

[이 학교를 소개합니다]
Sinarmas World Academy
〈이영미〉

60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 바람을
자카르타에 전하다 3
〈고성화, 정성환〉

63

한국문화원, ‘종묘제례악, 조선을
노래하다’ 전시회 개막

64

인도네시아 법 해설(346)
종교법 2 〈이승민〉

68

생활정보



논설위원 신성철

“150호 한인사회 역사를 쓴 홍석영 편집장의 담담한 퇴장”

2013년 1월호부터 지금까지 150권의 ‘한인뉴스’를 엮어온 홍석영 한인뉴스 편집장이 정든 자리를 떠난다. 격동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한인뉴스’의 변천사를 함께하며 한인사회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그의 발자취는 단순한 편집장의 퇴임을 넘어, 인도네시아 한인 언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온라인으로 홍석영 편집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면서, 한인뉴스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미래에 대한 바람을 들어보았다.

시대의 변화를 읽어낸 ‘한인뉴스’의 진화

홍 편집장이 처음 한인뉴스 편집을 시작했던 무렵에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월간지를 발행했다. “지금과 같이 빠른 인터넷 속도를 이용해 모바일로 손쉽게 접하는 뉴스가 대중화되기 전이라 한 달을 단위로 그야말로 한인사회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달하던 시절” 이었다는 그의 회고는 당시 한인뉴스가 수행했던 역할의 무게를 짐작하게 한다. 종이 매체가 주요 정보 습득 수단이던 시절, 한인뉴스는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창구였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화했다. 초고속 인터넷망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온라인 뉴스가 대세가 되면서 월간지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했다. 홍 편집장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냈다. 그는 “지금은 월간답게 읽을거리와 지난 한 달, 기록의 의미가 커졌다”고 말하며, 한인뉴스가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심층적인 읽을거리와 한 달간의 주요 사건을 기록하는 사료(史料)적 가치를 지향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월간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탁월한 편집 방향이었다.

‘우리들의 잡지’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홍 편집장이 가장 주안점을 둔 편집 방향은 “다양한 세대와 직군, 남녀노소의 관심을 끄는 콘텐츠의 확보와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들의 잡지가 되고자 노력함”이었다. 이는 한인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인뉴스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보여준다.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에 치우치지 않고, 넓은 스펙트럼의 독자들을 아우르려는 노력은 한인뉴스가 단순한 정보지를 넘어 한인사회의 ‘공동체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로 한인뉴스는 기업 소식, 교민 사회 행사, 문화 칼럼, 생활 정보 등 다채로운 코너를 통해 한인들의 삶에 스며들었다. 이웃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 지면에 담아내는 흥 편집장의 섬세한 시선은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우리들의 잡지’ 라는 그의 지향점은 한인뉴스가 단순한 인쇄물이 아닌, 한인들의 삶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매체로 존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에 담긴 ‘한인뉴스’의 가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스쳐 지나갔을 13년의 세월 동안, 흥 편집장의 기억에 가장 깊이 박힌 사건은 단연 2020년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제작 과정이었다. 그는 “편찬위원회 구성부터 출간까지의 스토리”를 잊지 못할 경험으로 꼽았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한인뉴스’가 단순한 언론 매체를 넘어, 한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100년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한인뉴스가 축적해온 방대한 자료와 정보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흥 편집장은 한인뉴스의 가치를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한인뉴스가 “지난 한 달, 기록의 의미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는 ‘한인뉴스’가 단순한 소식지에서 벗어나 한인 이민사의 중요한 기록물로서 영구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앞으로 한인뉴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흥 편집장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제작 경험을 통해 확인한 한인뉴스의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내는 중요한 매체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담담한 퇴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

홍석영 편집장의 퇴임은 한인뉴스에게는 아쉬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가 13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토대 위에서 한인뉴스는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를 접목하며, 여전히 ‘우리들의 잡지’로서 한민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150권의 ‘한인뉴스’를 통해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삶과 함께 숨 쉬었던 홍석영 편집장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그의 헌신과 열정은 한인뉴스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의 담담한 퇴장과 함께, 한인뉴스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를 응원한다. [끝]

[제21대 대선] 인도네시아 동포 4,391명 투표로 81.05% 최고 기록

재외국민 투표율 79.5% '역대 최고' ...20만5268명 참여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발리분관에서 시행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4,391명이 투표해 신고자 총 5,417명 가운데 투표율 81.05%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25일(월)까지 6일간 운영된 대사관 재외투표소에 20일 459명, 21일 441명, 22일 493명, 23일 506명, 24일(토) 1,245명, 25일(일) 949명으로 신고등록 확정명부 5,060명 가운데 4,093명이 투표해 80.8%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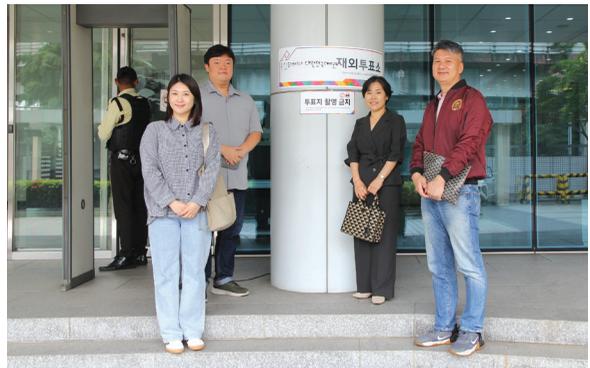
주발리분관에 따르면 5월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신고 등록 확정명부 357명 대비 총 298명이 투표로 83.4%를 기록했다.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인도네시아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유권자는 19,448명 가운데 신고·신청자 수는 인도네시아대사관 5,060명, 발리분관 357명으로 총 5,417명이다.

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20만 5268명 참여해 명부등재 선거인수 기준 79.5%를 나타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마감 결과를 잠정 집계해 26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가운데 25만 8254명이 명부에 등재됐고, 총 20만 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첫날의 모습(2025. 5.20)

< 역대 재외선거 투표 현황 >

구 분	제21대 대선 (25. 6. 3.)	제22대 국선 (24. 4. 10.)	제20대 대선 (22. 3. 9.)	제21대 국선* (20. 4. 15.)	제19대 대선 (17. 5. 9.)	제20대 국선 (16. 4. 13.)	제18대 대선 (12. 12. 19.)
추정재외선거권자수 (A)**	1,974,375명	1,974,375명	2,009,224명	2,149,691명	1,978,198명	1,978,197명	2,236,819명
선거인수 (B)	258,254명	147,989명	226,162명	171,959명	294,633명	154,217명	222,389명
투표자수 (C)	205,268명	92,923명	161,878명	40,858명	221,981명	63,797명	158,225명
투표율 (C/A C/B)	10.4% 79.5%	4.7% 62.8%	8.1% 71.6%	1.9% 23.8%	11.2% 75.3%	3.2% 41.4%	7.1% 71.1%

* 2020년 제21대 국선에서 59개 국가(91개 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외선거사무 중지

** 추정재외선거권자수는 재외동포청에서 발간하는 「재외동포현황」 재외국민수의 80%로 추정함.

이같은 수치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 대비 10.4%, 명부등록 선거인 수 대비 79.5%에 해당한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시아주가 10만 2644명, 미주가 5만 6779명, 유럽이 3만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가 2473명이다.

재외 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져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회송용 봉투를 확인하고 등기 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 투표 당일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해외에 살어도 재외국민 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직접 실천하며 책임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정다미(생애 첫 투표, 자카르타 거주)

한편,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기간 마감일의 다음날인 5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박수덕 대사대리

출처: 재외동포신문

(<https://www.dongponews.net>)





직원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PMK 66/2023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지난 2023년 6월 27일에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PMK 66/2023이 공표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회사가 직원 개인에게 제공되었던 아파트, 편의시설 등 현물과 음식, 골프 멤버십 등 향응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회사가 개인 급여 등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일까?” 조세조화법 (HPP) 제 4조 (3)항 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학금은 소득세 부과가 면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PMK No. 68/PMK/03/2020 규정하고 있는데 제 2조 2항에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장학금 수여자는 인도네시아 시민권자(WNI) 이어야 한다.
둘째, 국내 및/또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정규 교육 및 비정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기 특정 요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a. 장학금 수여 기관의 납세자는 비즈니스 관계, 소유권 관계 또는 통제 관계에 있는 경우
- b. 장학금 수여 기관 납세자는 소유주, 감사, 이사 또는 관리자가 혈연 또는 직계 및/또는 1촌의 혈연 관계인 경우
- c. 장학금을 수여하는 개인 납세자와 사업관계가 있는 경우

위에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한국인 임직원 또는 자녀에게 제공하는 학비는 해당 임직원의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끝>



정

높새바람 꽃가마는
언제 오려나
별리의 순간!
눈물로 끌어안는
마지막 안간힘

이미지, 글: 김준규

2025년 5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비즈니스>

중국 BYD,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6위 등극

중국 전기차 대기업 BYD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판매 1위,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6위에 오르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졌다.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협회(GAIKINDO) 자료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여전히 전기차 시장 진입에 신중한 가운데, BYD는 2025년 1분기 동안 5,718대를 판매하며 전기차(EV)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 수치에는 BYD의 프리미엄 서브 브랜드인 덴자(Denza)의 판매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덴자는 고급 전기 MPV(다목적차) 2,524대를 판매하며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EV 브랜드가 되었다. 다른 중국 브랜드들도 상위권에 올랐다. 체리(2,465대), 울링(2,177대), 아이온(AION, 1,201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내연기관차와 EV를 모두 판매하며 현지 생산까지 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차는 같은 기간 EV 573대 판매에 그쳤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 전기차만으로도 대형 브랜드 추격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공장 출고 기준(도매) 자동차 총판매량에서 BYD는 EV만 판매하고, 시장 진출 1년 만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6위를 기록했다고 17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BYD는 2024년 1월 인도네시아 법인 출범 후 같은 해 6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차량의 소비자 인

도를 시작했으며, 2026년까지 현지 생산을 개시해야 하는 정부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올해 1~4월 기간에 도요타의 시장점유율은 33.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다이하쓰(17.1%) 혼다(9.9%) 미쓰비시(8.3%) 스즈키(7.1%)이며, BYD(4.9%)가 6위이다.

BYD의 성장세는 월별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1월 1,114대에서 4월 3,496대로 급증했다. 반면 스즈키는 같은 기간 동안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미쓰비시는 4월 3,791대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5년 4월 한 달 기준으로 BYD는 전체 도매 판매에서 5위를 차지했다. 소매 판매(딜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기준에서도 BYD는 8,894대 판매, 3.3% 시장점유율로 6위에 올랐다.

GAIKINDO가 집계한 총 45개 브랜드의 1~4월 도매 판매량은 256,368대, 소매 판매는 267,514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7.7% 감소했다.

일본 브랜드는 하이브리드에 집중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하이브리드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도요타, 다이하쓰, 이스즈의 인도네시아 공식 유통사인 아스트라 인터내셔널(Astra International)은 전면적인 EV 출시를 유보한 상태다.

아스트라의 헨리 타노토 이사는 “하이브리드가 인도네시아 교통 환경에 가장 현실적인 해법” 이

라며, “곧 대중 시장을 위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스트라는 15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 중이며, 헨리 이사는 중고차 가치와 안정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점으로 강조했다. “전기차 구매자들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중고차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

차를 ‘보조용 차량’ 으로 보고 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요 도시를 넘어 위성 도시 등에서도 더 폭넓게 채택되고 있다.

2025년 1분기 동안 아스트라는 자사 브랜드를 통해 총 110,812대를 판매하며, 전체 시장의 54%를 점유했다.

그랩, 고투와 70억 달러 규모 합병설 부인

그랩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빅테크 기업 고투(GoTo Gojek Tokopedia, GOTO)와의 70억 달러 규모 합병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시장의 추측을 일축했다고 지난 5월 15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그랩 인도네시아 티르자 무누사미 관계자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합병설은 검증된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이며, 이에 대해 더 이상의 논평은 어렵다” 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은 그랩이 고투와의 합병을 위해 법률 및 재무 자문사를 고용했으며, 거래가 이르면 2025년 2분기 중 성사될 수 있다는 보도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합병은 약 70억 달러(약 1,148조 루피아) 규모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술기업 통합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랩은 직접적으로 이 추측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내 사업 강화와 지역 경제 참여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르자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랩과 고투의 합병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2월에도 유사한 보도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고투 측이 이를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이번 합병설은 그랩이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에 대한 공공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그랩은 자사가 외국인투자회사(PMA)로서 인도네시아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기업임을 강조했다.

그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직원의 99%가 현지인이며, 임원급 외국인은 단 1명에 불과하다.

티르자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미래는 인도네시아인이 주도해야 합니다. 그랩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함께 만든,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업이다” 라고 강조했다.

2021년 고젝과 토크페디아의 합병으로 탄생한 고투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고투는 순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해 4.2조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분기 손실은 전년 4,200억 루피아에서 2,760억 루피아로 감소했다.

한편, 그랩 홀딩스(Grab Holdings Ltd.)는 2024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7억 6,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온디맨드(GMV) 총 거래액은 20% 증가해 50억 달러에 달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그랩은 순이익 1,100만 달러, 조정 EBITDA 9,7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EBITDA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이다.

프라보워 “첫 임기 실패하면 2029년 재선 도전 없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조기 재선론에 대해 선을 그으며, 첫 임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판단될 때에만 2029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그린드라당(Gerindra)의 청년단체 띠티다르(Tidar, Tunas Indonesia Raya) 제4차 전국대회에서 나왔다. 대회 참석자들은 공개적으로 프라보워의 두 번째 임기를 지지하고 나섰다.

프라보워는 ‘프라보워 2기’ 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 발언을 정정하겠다고 17일 자카르타 보로부두르 호텔에서 당원들에게 말했다. “아직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안 됐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고 당부했다.

프라보워는 이어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나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 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라하유 사라스와티 Tidar 의장(프라보워 대통령 조카)도 프라보워 대통령이 재선에 나선다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향후 재선 여부는 오직 5년 임기 동안 행정부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집권한 지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여권 내에서 벌써부터 2029년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73세인 전국방장관 프라보워는 장기 집권보다 공약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프라보워는 2029년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을 8%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의 5.0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라하유 의장은 이어 프라보워의 무료 급식 제공, 저렴한 주택 정책, 농업 자립 등 민생 중심 공약이 유권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Tidar는 프라보워가 출마를 결정할 경우 2029년 또 한 번의 그린드라당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라하유 의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비전은 명확하다. 극빈층 제로, 경제성장률 8%라는 목표에 대해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 라며 “앞으로 4년 반 동안,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강한 경제의 기초를 다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프라보워는 “결정은 신의 뜻일 뿐 아니라, 내 판단에 달려 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고 느낀다면, 차기 대선은 없다” 라고 강조했다.

이흥 노바텍스 대량해고 사태, 인력부 중재... 1천여 명 복직할 듯

인니, 이어지는 대량해고 물결... 제조업에서 언론매체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제조업부터 언론매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량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안파라통신

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 대해 해고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비공식 부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안 의장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홀로 싸우도

록 놔두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임금 노동자에서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로 전환되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푸안의 발언은 5일 국회 제9위원회와 노동부 야시예를리 장관 간의 회의에서 나온 보고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해고된 노동자는 총 24,036명에 이른다.

푸안은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고용시스템이 경제구조 변화와 디지털화의 도전에 아직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라고 평가했다.

2025년 초 해고 사례

2025년 초 국영 인도네시아 라디오방송 라디오(RRI)와 TV 방송(TVRI)에서도 발생했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의 예산 절감 정책의 결과로, 프리랜서 기고자들과 계약직 파트너들이 해고되었다.

RRI 측은 기관 내부의 예산 삭감이 사실임을 인정하며, “우리는 정부가 내린 정책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라고 RRI 대변인 요나스 마르쿠스 투홀레루가 밝혔다.

한편, 중부술라웨시주 언론단체연합 ‘루마 저널리스트(Rumah Jurnalis)는 TVRI 동남술라웨시지부 약 15명의 기자와 방송인을 돌연 해고한 사실을 비판했다. 이는 역시 정부의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초 SEA Today에서도 해고가 발생했다. PT Metra Digital Media 산하의 이 미디어사는 프로그램 축소로 인해 일부 직원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EA Today는 인도네시아 관련 뉴스와 정보를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방송사다.

PT Metra의 관계자 아위 시라푸르나 푸트라는 2025년 2월 2일 Tempo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프로그램 조정의 결과로, 계약이 만료된 직원들과의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설명했다.

언론사 전반에 걸친 해고는 SEA Today에 국한되지 않는다. 언론위원회 니닉 라하유 의장은 다수의 언론사로부터 해고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Kompas TV는 약 150명의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텍스, 야마하, 나이키까지... 제조업계도 타격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도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다양하다. 수입 제품의 급증과 국제 수요 감소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리텍스(Sritax)로, 2024년 10월 파산 선언 이후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해고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11,025명이 단계적으로 해고되었다.

서부자바주 PT Yamaha Music Indonesia에서는 약 400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자카르타 지역에서는 700명의 노동자 해고가 보고되었다고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KSPI) 사이드 이크발 의장이 밝혔다.

또한,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를 OEM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진 반뜰주 땅그랑에 위치한 PT Victory Chinglu Indonesia는 무려 2,400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2025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우리 민족의 역사와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값진 경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동남아 남부 협의회(회장 이세호)는 5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 ‘2025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대리, 한인회 김종현 회장, 상공회의소 이강현 회장, JIKS 이선아 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 골든벨 예선 대회와 인도네시아 대학생 100명이 참가한 ‘인도네시아 학생 통일 골든벨 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어로 남북한 역사와 통일 관련 문제를 풀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인도네시아 학생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UPI) 한국어 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휘를리 파딜라(Firly Fadilah) 씨가 최후의 1인으로 골든벨을 울리며 우승을 차지했다. 휘를리 씨는 “처음 가보는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미디어를 전공하고 언론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세호 회장과
최종우승자 Firly

박수덕 대사대리와
최종우승자 우은수

휘를리 씨는 이번 우승으로 상금과 함께 한국에서 열리는 민주평통 외국인 통일 골든벨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항공권과 경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한국 청소년 부문에서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11학년 우은수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우 학생은 “예상치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값진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세호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학생들의 수준이 놀랍다”며 “특히 한글로 문제를 풀어내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열정이 인상 깊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학생 간의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행사 중간에는 인도네시아 참가 학생들이 준비한 K-pop 노래와 댄스 커버 무대가 펼쳐지며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며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Wabi-Sabi Restaurant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의 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덕분’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이라고 나옵니다. 덕, 덕운, 덕택으로도 바꾸어 쓸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덕이 得(얻을 득)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와 무엇인가를 남긴다고, 나한테서 무언가가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기쁨이나 벅참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날씨 덕에 미소 한번 짓고, 웃음 덕에 기분 좋아지고, 기분 좋은 덕에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처럼 덕분에 하루에 맺힌 좋은 마음이 좋은 일로 불어나는데요. 맛있는 음식으로 좋아진 기분 덕분에 여러분들의 하루가 일의 능률이 오르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근사한 맛집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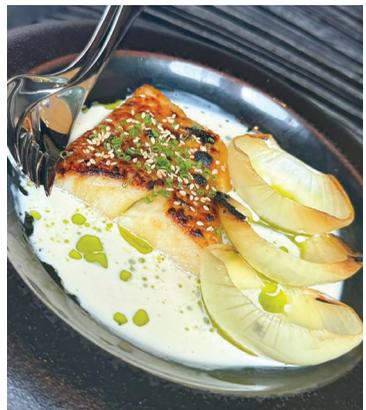
오늘 소개드릴 곳은 Wabi-Sabi Restaurant입니다. 코스로 나오는 오마카세 요리가 전문인 집인데요. 블랙 대리석 테이블, 블랙 소파와 높은 천장, 웅한 느낌의 조명들로 클래식하지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지만 소중한 귀한 분들을 대접하거나 고생한 나에게 보상을 주고 싶을 때 이 식당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평일에는 오후 다섯시부터 오픈이라 점심 식사는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리 소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요리로 Crispy Rice (120,000 루피아++)입니다. 얼핏 보면 일반 연어초밥 같지만 연어 토핑 밑에 밥이 구워져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누룽지 같은 맛의 고소한 풍미가 크리미하고 버터 같은 연어 식감과 잘 어우러지는데요. 토핑으로 아보카도도 있어서 크리미하고 버터리한 식감이 두 배가 된답니다. 또 Chuka wakame라는 미역줄기도 토핑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사실 아보카도와 연어 같은 입에서 녹아버려서 씹는 식감이 부족했던 터인데 미역줄기가 그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같아서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일반적인 연어초밥이 지루했던 분들에게 이 퓨전 연어초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요리는 Duck Duck Foie (180,000 루피아 ++)입니다. 일단 이 요리는 비주얼이 상당히 합격입니다. 둥지같이 엮은 지푸라기에 돌맹이들을 놓고 그 위에 계란 껍질 세 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 안에 차완 무시(일본식 계란찜)이 들어있는데요. 일본식 계란찜 특징은 씹히는 맛이 없는 아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 이지요. 이곳의 차완무시 특징은 달걀이 아닌 오리알과 푸아그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고소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토핑으로는 오리 가슴살 훈제와 소량의 푸아그라가 있었는데요. 푸아그라란 프랑스 음식으로 거위의 살찐 간을 재료로 한 요리입니다.

푸아그라의 유래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고대 이집트에서 야생 기러기의 살찐 간을 재료로 쓰기 시작한 것인데요. 겨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나일강에 날아온 기러기와 오리들은 겨울이 끝난 후 북쪽으로 돌아가기 위한 장거리 여행을 위해 무화과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무화과를 많이 먹은 기러기들의 간에 지방이 많이 저장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후에 지방이 많은 간을 연중 내내 만들어내기 위해 사육하는 거위에게 무화과를 먹이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고 합니다. 고대에서부터 역사가 깊은 음식이었다니 꽤 새롭네요. 소스는 트러플 소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트러플 풍미가 부드러운 계란찜과 아주 잘 어울려서 다음에 집에서 계란찜 할 때 트러플 오일을 곁들여 보면 어떨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트러플 소스 잘 기억하셔서 트러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 식욕 돋우는 애피타이저로 딱인 이 요리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요리로 Halibut Misozuke (250,000 루피아 ++)입니다. 광어 생선구이인데요. 참깨 된장소스에 버무린 소스에 구워서 짭조름하고 한국인이 싫어할 수 없는 맛이에요. 옆에 구운 양파도 곁들여져 있어 아삭한 양파와 부드러운 흰 살 생선의 조합이 아주 좋은데요. 곁들여진 소스는 bincho sobise 수비즈 소스였는데요. 양파가 들어간 흰 소스입니다. 이 소스의 특징은 양파를 끓는 물에 넣고 가열한 뒤, 건져내고 버터 100g, 소금, 후추, 설탕과 함께 소스



팬에 넣고 뚜껑 덮은 뒤 30-40분 동안 색이 나지 않게 자체 수분으로 익히는 것인데요. 그 뒤에 결 쪽하게 만들어 버터와 생크림을 다시 넣기 때문에 아주 하얗게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요.

양파가 주 베이스기 때문에 생선의 비릿함도 잘 잡아주어서 이 요리에 아주 탁월한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먹고 나서 속도 편한 고기 말고 생선 어떠세요?

사실 이 식당은 단품도 괜찮지만 오마카세 전문점이라 오마카세로 즐겨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제공되는 요리마다 플레이팅이 너무 멋있고 귀여워서 맛이 없더라도 용서해 주려는데 맛까지 받쳐주니 금상첨화네요. 그리고 오마카세는 각테일과 디저트까지 제공되니 가성비적인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7코스+디저트+막테일이 제공되는 Shokunin (650,000 루피아++)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와규 스테이크가 제공되는 Grand Omakase (1,350,000 루피아++)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저트들이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예쁘답니다. 구성에 비해 가성비 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마카세도 여유 되시면 꼭 드셔보세요. 그 외에 와인과 각테일, 사케 종류도 많으니 같이 곁들여도 즐거운 식사 자리 될 것 같네요.

그럼 맛있는 음식 먹으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행복한 시간 '덕분에' 또 즐거운 한 달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달에 더 맛있고 멋진 맛집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식당 정보: Wabi-Sabi Restaurant>

음식 종류 : 퓨전 일식

가 격 대 : Rp 70,000-1,500,000/ 2인 기준

영업 시간 : 월~금 오후5:00- 오후 10:00

토~일 오후12:00- 오후 10:00

주 소 : MD Place, Jl. Setia Budi
Selatan No.7 12th Floor
Karet Kuningan, Setiabudi,
Jakarta 12910

※ Google 참고





바람 부는 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리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 오는 곳 그 곳으로 가네

- 김광석 작사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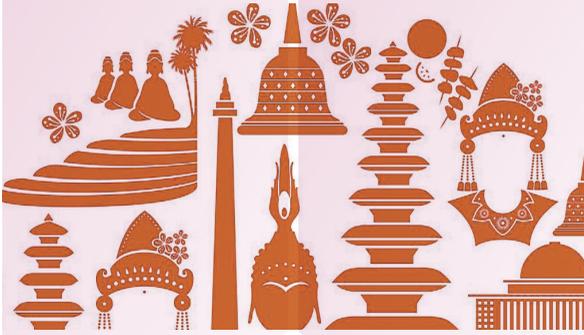
Florist 김수남
(한인문예총 한인꽃꽂이 협회 회장)

이 작품은 스티로폼에 나무잎을 발라 만든 작품입니다.

한인 문예총에서 올 10월, 문예총 행사에 회원들 작품 전시를 풍성하게 꾸미기 위한 회원 확보를 목표로 6월부터 코리아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꽃꽂이 수강을 무료로 해드릴 계획입니다.

꽃값은 수강생이 부담합니다.

문의) 0812 8491 9977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지난 호에 이어

이 두 편의 서한에서와 같이 디포네고로 왕자는 자바섬에 평화로운 이슬람국가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스타버스와 칼리프를 통한 첫 휴전 제의가 있는지 3년이 지난 1830년의 전황은 전쟁 초창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스텔셀 요새작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승기를 잡은 네덜란드는 이제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마글랑으로 들어와 휴전조건을 협의해 봅시다. 설령 회담이 결렬되어도 디포네고로 왕자와 그 일행의 무사귀환을 보장하겠습니다.”

몇 년 전 디포네고로 측에서 꺼내들었던 것과 똑같은 협상 조건을 네덜란드 측은 조롱이라도 하듯 들이 밀었습니다. 그러나 디포네고로 왕자는 당시 드록 장군처럼 그 요구를 피하려고 온갖 이유를 갖다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1830년 2월 16일 지금은 뿌르위레조(Purworejo) 지역으로 분류되는 레모 까말(Remo Kamal)이라는 곳의 회담장에 디포네고로 왕자가 소수의 호위대만을 거느리고 홀연히 나

타났으므로 네덜란드군은 허를 찔린 듯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회담이 진전을 보지 못한 이유는 디포네고로 왕자의 상대로 나온 클레이런스 대령의 지위가 격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 자바땅의 술탄으로 내 위로 아무도 모시고 있지 않소. 그런데 네덜란드군의 일개 장군도 아니고 자기 머리 위에 수많은 상관들을 이고 있는 이가 협상의 대표로 나와 휴전조건을 따지겠다는 거요? 여기서 내가 내린 결정을 당신 상사들에게 추인받겠단 거요? 당신들의 교만함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란 말이요?”

디포네고로 왕자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기저에 네덜란드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드록 장군의 오른팔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던 클레이런스 대령은 자바 전쟁을 처음부터 겪어온 베테랑이었고 나름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족자 끄라톤에서 술탄과 똑같은 의자에 앉는 네덜란드의 ‘장관’ 급 인사입니다. 술탄인 당신과 협상하는데 하등의 하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Islamic Months

1 Muharram	مَحْرَمٌ	7 Rajjab	رَجَبٌ
2 Safar	صَفَرٌ	8 Shabaan	شَعْبَانٌ
3 Rabi-ul-Awwal	رَبِيعُ الْأَوَّلِ	9 Ramazaan	رَمَضَانٌ
4 Rabi-us-Saani	رَبِيعُ الثَّانِي	10 Shawwal	شَوَّالٌ
5 Jama-dil-ula	جَمَادِي الْأُولَى	11 Zulqaidah	ذُو الْقَعْدَةِ
6 Jamad-us-Saani	جَمَادِي الثَّانِي	12 Zulhujjah	ذُو الْحِجَّةِ

이슬람력의 월 이름 (라마단은 9월)

“나와 내 병사들이 이 협상에 나오기 위해 목숨을 건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건 클레이런스 대령, 당신의 용기는 나 역시 높게 평가하오. 하지만 내게 협상요청을 한 자는 당신네 드콕 장군이었소. 우리 진영으로 들어와 협상하자 할 때 무서워서 엄두도 못내던 그 자가 이제 자기 진영에서도 내가 무서워 꼬리를 감춘단 말시오?”

“자바 왕국의 술탄들을 네덜란드군의 대령급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 계급과 직위라면 충분히 격을 맞춘 셈이고 난 모든 전권을 가지고 여기 온 것이오.”

디포네고로 왕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정색을 하며 말을 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결기가 가득했습니다.

“술탄의 왕좌를 감히 당신들 계급장으로 저울질하려 들지 마시오. 지금 당신 목을 날려버려도 당신 자리는 얼마든지 다시 채워질 것 아니오? 그런데 그동안 당신들이 날 잡으려 그토록 애쓴 이유가 뭐요? 날 잡으면 누구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 아니오? 그런데도 같은 급이라고? 본디 자바의 술탄들은 당신네 본국 국왕과 같은 지위인 거요. 그러니 자바땅의 술탄이 드콕 장군 정도

를 만나겠다 수락했으면 당신들은 감지덕지했어야 해요. 클레이런스 대령, 당신에겐 좀 가혹한 말이겠지만 심해의 고래가 어찌 민물 가물치 한 마리와 바다의 비밀을 논하겠소?”

실제로 네덜란드가 술탄들에게 본국 왕립 육군의 군복을 입히고 대령 계급장을 달아 주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명꾸부위노 5세도 장성한 후 네덜란드군 대령 계급장을 달게 되고 그로부터 100년도 더 지난 1945년 서부 칼리만탄의 주도 뿌띠아낙의 하미드 2세도 술탄 등극과 함께 네덜란드 왕립군 대령으로 임명된 사례가 관찰됩니다.

다음 세기에 이르도록 동인도의 술탄들을 네덜란드군 장성들의 수하 정도로 여기는 식민지 종주국의 시각은 족자 술탄국의 성립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가의 왕자들은 초급 장교로 간주되었고 앞서 몇 차례 소개되었던 족자 끄라톤 경비대장 출신 위로네고로 왕자는 그의 혈통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겨우 중령까지 진급했을 뿐입니다. 디포네고로군 사령관이었던 셉뜻조차 끄라톤에 들어가 소령 계급장을 받아든 것을 앞서 이미 기술한 바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 자리가 무산된 것은 분명 당신들의 책임이오. “

클레이런스 대령은 네덜란드 측의 예단이 너무 물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디포네고로 왕자를 자바땅의 일반 왕국 술탄들, 또는 그보다 훨씬 아래 레벨로 얽잡아 보았고 디포네고로 왕자 자신도 그 상황을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드콕 장군은 그때 공교롭게도 바타비아에 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찌면 고의였을 지도 모르죠. 당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네덜란드가 이

회합을 디포네고로 왕자의 무조건 항복으로 가는 일종의 요식행위 정도로 여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레이런스 대령은 디노네고로 왕자가 전혀 항복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드높은 자존감 앞에서 주저넘게 오만을 떨다가 자칫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술탄 전하, 드콕 장군께서는 바타비아에 가신 것은 총독부의 급한 소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대신 나온 것이니 너무 노여워 마시기 바랍니다. 드콕 장군은 곧 돌아올 것이니 얼마간의 말미를 주시길 바랍니다.”

클레이런스 대령의 말에 디포네고로 왕자는 또 다시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회합을 속개하려거든 꼬짜왕(Kecawang)에서 합시다. 우린 그 근처에 머물 것이오. 라마단(Ramadhan)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무 늦진 않길 바라오.”

당시 양측엔 휴전이 발효되고 있었습니다. 디포네고로는 레모 까말에서의 회합을 마친 후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의 군대와 합류해 사카 마을(desa Saka) 북쪽 꼬짜왕(Kecawang) 인근에 주둔했습니다.

“나보고 자기 진영에 들어와 달라고?”

바타비아의 드콕 장군은 필쩍 뛰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는 적진에 들어가 회담을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디포네고로를 본진에 끌어들여 사로잡으려 했던 만큼 자신도 적진에 들어가면 같은 신세가 될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휴전협상은 우리 본진에서 열어야 하오. 그러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동원하시오!”

드콕 장군의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클레이런스 대령은 머리를 싸매고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가 처음 레모 까말에 나타났을 때 즉시 달려들어 체포했어야만 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죠.

그때 레모 까말 외곽엔 디포네고로군의 대부분이 전투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던 중이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왕자를 잡으려 했다면 당장 대규모 전투가 벌어져 레모 까말은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고 네덜란드군이 꼭 승리하리란 보장도 없었습니다.

만약 드콕 장군이 스스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서도 디포네고로를 잡으려 한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걸어야만 할 터였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클레이런스 대령은 결국 자신이 목숨을 걸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전령을 먼저 꼬짜왕으로 출발시켜 자신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한 시간 후 자신은 호위병 몇 명만을 데리고 직접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술탄 전하, 드콕 장군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도 레모 까말에서의 결례를 사죄하기 위한 선물로서 저희 스마랑 군영에 보호하고 있는 왕후 전하와 왕자님들을 모셔오려 합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의 눈이 번쩍 떠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이후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기로 수십, 수백 번 맹세한 그였습니다. 그래서 삼촌들과 이복동생들, 왕가의 친인척들과 귀족들이 죽자 꼬라톤과 네덜란드군의 편에서 있던, 아군에 있던 그 생사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 역시 아내와 자식들은 누구 못지 않게 애뜻하고 그리웠던 것입니다.

(전호에서 계속)

[칼럼] 인도네시아의 살아있는 유산, '자무' - 전통과 현대의 조화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인도네시아를 여행하거나 그 문화를 접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자무(Jamu)' 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혹자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주황색 물병을 든 아주머니의 모습에서, 또 다른 이는 슈퍼마켓 선반에 진열된 병에 담긴 자무를 발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무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수세기 동안 인도네시아인의 삶과 함께하며 그들의 건강과 문화를 지탱해 온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전통의 숨결

자무는 인도네시아 고유의 전통 약초 음료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미 고대 자바 왕실에서부터 자무가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그 지식은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강황, 생강, 타마린드, 쌀 등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연에서 얻은 다양한 식물성 재료들이 각자의 효능에 따라 조합되어 만들어지죠.

자무의 가치는 단순히 몸에 좋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조상들의 경험과 지식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서구 의학이 보편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인도네시아인들은 자무를 통해 스스로의 몸을 돌보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자립적 건강 관리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자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재료가 사용될까요?

자무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재료의 선정과 비율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료 준비: 주로 강황, 생강(특히 방향성 생강인 Kencur), 타마린드, 쌀, 계피, 팔각, 야자 설탕, 소금 등 다양한 뿌리, 잎, 씨앗, 향신료 등을 준비합니다.
2. 세척 및 분쇄: 준비된 재료들을 깨끗이 씻은 후, 절구나 믹서에 넣고 잘게 부수거나 갈아줍니다. 전통 방식에서는 절구를 이용해 재료의 유효 성분을 최대한 추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3. 우리기 또는 끓이기: 분쇄된 재료에 물을 넣고 주물러서 우려내거나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끓여서 재료의 성분이 우려나오도록 합니다. 이때 달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 야자 설탕이나 꿀 등을 넣기도 합니다.
4. 거르기: 충분히 끓인 후, 고운 천이나 체로 건더기를 걸러내면 액체 형태의 자무가 완성됩니다.



자무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들:

강황(Kunyit): 노란색을 띠게 하며, 염증 완화, 소화 개선, 항산화 효과 등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향성 생강(Kencur): 일반 생강보다 향이 부드럽고 맵지 않으며, 피로 회복, 식욕 증진, 감기 예방 등에 사용됩니다.

타마린드(Asam Jawa): 새콤한 맛을 내며, 소화 촉진, 변비 개선, 해열 작용 등에 쓰입니다.

생강(Jahe):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불량, 메스꺼움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쌀(Beras): 주로 브라스 끈꾸르에 사용되며, 부드러운 맛을 내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몬그라스(Sereh), 계피(Kayu Manis), 팔각(Pekak): 향을 더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 등 다양한 효능을 위해 첨가됩니다.



다양한 종류,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

자무는 단일한 형태가 아닙니다. 가장 대중적인 꾸닛 아삼(Kunyit Asam)은 강황과 타마린드의 조합으로 생리통 완화와 염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상큼한 맛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쌀과 방향성 생강이 어우러진 브라스 끈꾸르(Beras Kencur)는 피로 회복과 식욕 증진에 좋다고 알려져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력한 쓴맛으로 혈액 정화와 면역력 강화에 쓰이는 빠히트 리다(Pahit Lidah), 여성 건강과 미용을 위한 자무 싱셋(Jamu Singset), 남성 활력을 위한 자무 꾸앗(Jamu Kuat) 등 수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각 자무는 특정 증상이나 체질에 맞춰 재료를 조합하는 ‘개인 맞춤형’의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맞춤형 영양제처럼, 개인의 건강 상태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자무와 한약, 동양 전통 의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무를 접하다 보면 한국의 한약(韓藥)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둘 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의학 체계에서 파생되었고, 자연에서 얻은 약재를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약재를 조합하는 맞춤형 처방을 중시한다는 점도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합니다. 한약은 ‘음양오행’ 과 같은 동양 철학적 기반 위에서 정교하게 체계화된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약재의 배합 비율, 탕제 방식 등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전문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자무는 비교적 일상생활에 더 밀착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비법과 지식이 중요하지만, 대중적으로는 건강 보조 음료처럼 가볍게 접근하고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무 겐동(Jamu Gendong)’ 이라 불리는 자무 행상들이 직접 만든 자무를 팔며 대중과 교류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생활 밀착형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약이 다소 전문 의료 행위의 영역에 가깝다면, 자무는 보다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건강 관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자무의 진화

전통적인 자무는 집집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들어지거나, ‘자무 겐동’ 아주머니들이 직접 만들어 팔며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무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자무가 지루하거나 맛없는 옛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자무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카르타의 세련된 카페에서는 세련된 포장과 맛으로 재탄생한 자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통 재료는 유지하되,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거나, 병에 든 제품으로 유통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무가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도 인도네시아인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힙’ 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상품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무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의 흐름에 맞춰 진화하는 자무의 모습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인도네시아의 지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한 잔의 자무는 골목길에서 가볍게 만나는 음료수일지라도, 그 안에는 인도네시아의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끝]



지난 호에 이어

생활한의학 9

무기력증

무기력증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에너지나 의욕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심리적 요인, 생리적 문제,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로감과 집중력의 저하로 인해 보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림:

무기력은 육체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은 20%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80%이상은 정신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음의병(스트레스, 화병)>>>>우울증 × 공황장애>>>>무기력증 × 번아웃 증후군

*주부

결혼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결혼과 함께 육아에 전념하며 오랜 시간 일터를 떠나 있었다. 처음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점점 사회와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고 외부로 나가는 일이 어색하고 두려워졌다. 외출 하더라도 금세 몸이 지치고,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외부와의 접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산만하다고 느꼈다. 감정 조절도 점차 힘들어져, 사소한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내 안에 있던 도전 정신과 열정은 서서히 식어갔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는 욕구와 욕망조차 희미해져 갔다. 모든 일이 귀찮고 힘들게 느껴졌으며, 머릿속은 이런저런 생각만 맴돌뿐 정작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였다.

예전에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나였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싶은 의존적인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 자도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은 얼굴에서 생기를 빼앗고, 활동력도 떨어뜨렸다. 그렇게 내 자신의 하루하루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거울 속 비취진 내 모습을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다시 나 자신을 좀 챙겨야겠어.” 낯설고 무기력한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집 근처 운동센터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처음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하는 일조차 버거웠지만, 매주 한 번씩 나가는 그 외출이 삶에 작은 활기를 주었다.

그리고 종종 일기를 썼다.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오늘은 바람이 기분 좋았다’, ‘사람들이 웃는 걸 보니 나도 웃게 된다.’ 짧은 문장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도전과 열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다시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졌고, 밴드를 뒤지는 나를 발견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대학생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학비, 생활비, 기숙사비.... 감당할 수 없는 숫자들이 생각을 가득 메웠다. 언젠가부터 눈앞이 핑 돌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같았다. 가끔은 산신령이라도 뿜고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도움을 받을 곳은 없었고,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일까? 자꾸만 포기하고 싶어졌다. 가슴은 답답했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심적 괴로움은 몸까지 지치게 했다.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이 움푹달짝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끔은 세상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은 멀쩡히 웃고 떠들며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힘듦과 고민이 있다는 것을 그쳐,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 나아질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마음 한 켠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대로는 안돼.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 가장 먼저 일상의 루틴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그날 해야 할 일을 한두 개씩만 정리해보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목표부터, 아주 작게....

그리고 매일 밤, SNS에 글을 쓰며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오늘 하루를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이런 문장들이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글로 적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현실과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빠른 해결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차근차근 배워간다.

*취업준비생

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취업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과 비교하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직장을 구한 후엔 몇 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생각이 깊어질수록 현실은 미로 속을 걷듯 막막해졌다. 점차 목표도 의지도 꺾여갔다. 1년이라는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고, 어느 새 우울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 이루고 싶은 꿈만 떠올리며,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절망 속에 빠져버린 시간들이었다. 몸은 지쳤고, 면역력은 떨어져 아토피와 극심한 비염으로 밤잠을 설쳤다. 식욕은 들쭉날쭉 했고, 아침 해가 떠오르면 쏟아지는 졸음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겨우 눈을 뜨지만, 피로감에 몸은 무거웠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다.

한

그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마음 한편은, 이 상황을 타개할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나는 무기력을 극복한 다큐를 찾아보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작은 변화라도 내가 만들어보자.”

아침에 기상하면 침대부터 정리했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짧은 산책을 했다. 목표는 단순했다.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드는 데 집중하자.’ 그리고 자책 대신 스스로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다. “오늘도 수고했어. 난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고 싶은 일만 쫓던 과거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방

그렇게 나는 무너진 일상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직장인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다짐했다. “동료들과 상사와는 잘 지내야 해. 그리고 주어진 업무는 책임감 있게 해내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10년 가까이 묵묵히 일 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꼬여버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은, 나의 업무를 눈덩이처럼 불려 놓았다. 혹시라도 동료나 상사가 기분이 상할까봐, “이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라는 한 마디를 꺼내지 못했다. 결국 밀린 일은 야근으로 이어졌고, 쉬어도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는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해도 해도 줄지 않는 일들 속에서 나는 가랑비 옷에 젖듯 지쳐갔다.

어느 날부터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머리를 스쳤다.

“이런 삶을 과연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밤이면 후회와 자책이 교차했다.

“왜 나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지?”

내 주변에는 똑 부러지게 거절하면서도,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온 걸까? 아니면, 나를 억누르는 사람들이 나쁜 걸까?” 해답은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또 밤잠을 설치고 아침을 맞이한다.

출근길, 현기증이 나면서 지하철 계단에서 몇 번이고 발을 헛디뎠다. 창가에 비친 내 모습은 나이에 비해, 푸석푸석 하고 윤기가 너무나 없어 보였다. 예전엔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기가 막히게 하던 체육왕이었는데....

웬지 모를 후회가 밀려온다.

주말 새벽 정처없이 길을 걷다 발걸음을 멈춰 섰다. 하늘을 올려다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지금까지 잘 버텸어.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 좀 더 집중해보자.” 난생 처음으로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다. 그리하여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들으며 안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약해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왔던 거구나.” 그날 이후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좋아했던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무조건 참는 것보다, 건강하게 거절하는 법도 배우기로 했다. 아직도 익숙하진 않지만, 단호하면서도 정중히 “이건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느껴지는 가벼움이 싫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허했던 공간에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예전 체육왕 시절로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나도 다시 회복 할 수 있어!” 번아웃과 무기력을 인지하고 나서야, 나 자신에게 다시 희망을 건넬 수 있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셨다. “무기력증은 배가 부를 때 생깁니다. 배고프면 절대 안 생깁니다.”

“무기력은 ‘할 수 있는 것’ 이 너무 많아진 시대에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백세희 작가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에서 말합니다.

“운동하고 산책하고 샤워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무기력증은 “마음의 노숙자로 살아보는 시간” 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잃고 세상과 단절되고, 희망도,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순간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공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부모의 통제, 사회의 시선, 주변의 기대 속에서 진짜 내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좋은 사람’ 으로 살아가려 애써온 우리.

정작 좋은 사람은 진심으로 상대와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척 하며 살아온 세월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애썼다는 증거입니다.’ ‘무기력은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추었다 가는 시간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다시 걸어 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내딛으면 말이지요. 혼자 걷기 힘들다면 함께 걸어갈 누군가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그 여정을 시작하는 첫 사람이기를 바라봅니다.

韓方



알아두면 쓸모있는 골프 상식 골프 에티켓(Etiquette)과 매너(Manner)

글: 손상현(‘자카르타의 아침’블로거)

골프도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입니다. 골프 에티켓을 잘 모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반자들에게 매너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인생 처음 라운드라면 동반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주 라운드를 함께 하는 사이일수록 골프 에티켓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오랜 시간을 함께 즐겁게 라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골프 라운드, 골린이들의 첫 라운드에 도움이 되는 골프 에티켓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시간(Time) 에티켓

(늦어도) Tee Off 1시간 전에 클럽하우스에 도착하기, 시간 약속을 지키는 일은 신뢰 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부득이 하게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발하기 전에,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골프장에서 도착하면, 클럽하우스 내에서 이동시간과 그린피 계산, 로커룸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등을 고려하면 최소 20~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경우에는 식사 및 음료를 함께 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늦어도 최소 1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예정된 티업 시간에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 늦게 도착하면 동반자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첫 티 샷을 차분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동반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항상 존중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2. 티잉 그라운드(Teeing ground) 에티켓

티잉 그라운드 구역내에는 순서에 따라 한사람씩... 티잉 그라운드가 넓다고 아무 곳에서나 티샷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티잉 그라운드를 표시해 놓은 지점에서 뒤쪽으로 드라이버 두 클럽안에서만 티샷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티잉 그라운드에는 한 사람씩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 홀은 임의로 티샷 순서를 정하지만 두번째 홀부터는 전 홀에서 스코어가 가장 좋은 사람이 먼저 티샷을 합니다. 티샷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가서 동반자의 티샷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샷을 하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연습 스윙은 반드시 티잉 그라운드를 벗어나 지정된 장소 또는 동반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간혹 연습 스윙에 맞아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못 봤어요.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스스로 주의하지 못한 변명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3. 페어웨이(Fairway) 에티켓

그린까지 가장 먼 거리의 사람, 준비된 사람부터... 티샷 이후 페어웨이(fairway) 또는 러프(rough)에서 샷을 하는 경우 항상 그린(Green)까지 거리가 가장 많이 남은 순서로 샷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상황에 따라 준비된 사람부터 먼저 샷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동반자들에게 먼저 샷을 하겠다는 사인을 보내서 양해를 구하는 매너가 필요합니다. 샷을 하려는 순간 다른 쪽에서 누군가가 샷을 한다면 당연히 플레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앞쪽이나 가까운 곳에 동반자가 있으면 혹시나 미스 샷이 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샷이 어려워집니다. 드문 경우지만 앞쪽에 있던 사람이 골프공에 맞아서 중상을 입는 일도 있으니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은 매너입니다. 골프는 그린에서 가장 멀리 있는 플레이어부터 먼저 샷을 하게 하는 룰만으로도 이미 매너를 지키게 되어있는 운동입니다.

라운드 중에 페어웨이나 러프에서 공을 드롭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드롭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예전에는 어깨 높이에서 드롭을 했지만 2019년에 무릎 높이에서 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앉아서 드롭을 하는 경우에도 가상의 무릎 높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깨 높이에서 드롭을 하면 공이 러프 깊숙히 박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을 드롭 하지 않고, 클럽 헤드를 이용해 임의로 샷을 하기 좋은 위치로 공을 옮기거나 잔디에 묻힌 공을 잔디 위에 올려놓고 샷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비신사적인 행동은 동반자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듭니다. 모른 척하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을 골프 에티켓을 모르고 매너가 좋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같이 라운드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라운드 전에 동반자들과 서로 지켜야 할 에티켓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과격적인 방법은 “동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을 옮길 수 없습니다.”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4. 벙커(Bunker) 에티켓

의도적인 모래 접촉은 벌타, 벙커 뒷정리... 벙커에서 연습 스윙을 할 때 클럽 헤드가 모래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벙커에 헤드를 내려놓고 연습 스윙을 하거나 스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2019년에 바뀐 룰에도 의도적인 모래 접촉은 여전히 벌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이지 않은 미세한 모래 접촉은 벌타를 받지 않습니다. 한때 TV중계를 통해 시청자가 미세한 모래 접촉을 확인하고 신고를 해서 사후 벌타를 받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벙커에 들어간 공이 누군가의 발자국에 들어가 있어서 매우 불쾌한 기분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번에 자신이 정리하지 않은 발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고무래가 없어서 신발이나 아이언으로 대충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뒷사람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고무래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벙커 샷을 하고 나면 주로 캐디가 뒷정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캐디가 벙커 뒷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뒷정리를 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세요.

5. 그린(Green) 에티켓

그린에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은 **다른 사람의 퍼팅 라인을 밟지 않는 것**, 퍼트를 하는 사람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퍼트 순서는 홀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며, 퍼트 순서를 기다리는 동반자들은 퍼팅라인과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퍼트에 방해되지 않는 거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퍼트 후에 걸어가면서 동반자의 공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린에서는 요구하는 에티켓이 많은 편입니다.

☞ 퍼팅 라인을 밟지 않기

그린에 올라서면 먼저 동반자들의 공 위치, 볼 마커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반드시 볼 마커 바깥으로 돌아서 이동해야 상대방의 퍼팅 라인을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밟게 된다면 즉시 사과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퍼트 시 움직이지 않기, 말하지 않기

그린 위 또는 주위에서 움직이는 중이라도 다른 사람이 퍼트를 한다면 잠시 멈춰 주세요. 동반자, 캐디와 하던 대화도 중단해야 합니다. 퍼트를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좋은 매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뛰지 않기, 발 끌지 않기

대부분의 골프 스윙은 공을 띄워서 보내지만 그린에서는 공을 굴려야 합니다. 만약 그린의 바닥면에 상처가 생기면 공의 흐름이 방해받게 됩니다. 골프화의 밑면에는 페어웨이나 러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스파이크가 그린을 훼손할 수도 있으니 그린위에서는 절대로 뛰거나 발을 끌지 마세요!

☞ 퍼팅라인에 그림자 드리우지 않기~ 가끔 동반자의 퍼팅라인에 자신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른 아침이나 오후가 되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 그림자는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의 그림자가 동반자의 퍼팅 라인에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 **퍼팅라인 앞뒤에 서지 않기**~ 동반자와 비슷한 퍼팅라인에 본인의 공이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동반자의 퍼팅 라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퍼트를 하는 동반자의 앞쪽이나 뒤쪽에서 공이 굴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골프 격언에 '**드라이버는 쇼, 퍼트는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퍼트는 섬세한 감각과 집중력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는 동반자에게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합니다.

6. 동반자(Companion)에 대한 에티켓

동반자의 곳 샷에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동반자 서로의 응원과 격려는 라운드를 즐겁게 하고 다음 라운드로 이어집니다.

동반자가 스윙을 하기 위해 **어드레스 자세가 시작되면 말과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앞 팀을 만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골프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홀아웃 이후에 본인의 **스코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캐디 또는 동반자에게 확인해보세요. 물어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스코어를 속이는 일은 두고두고 창피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누구나 라운드 횟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스코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본인이 직접 스코어 카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스코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공이 러프나 해커드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페어웨이에 박혀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함께 공을 찾으면 비교적 빨리 찾을 수 있는데요. 혹시 공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플레이를 위해서 1 벌타를 받고 공을 분실한 지점에서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 드롭 후 플레이를 하시면 매너 있는 플레이어로 기억될 것입니다. 골프장에서 **눅장 에티켓**은 결코 환영 받지 못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MBA 과정에서 세계 유수의 **CEO들에게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을 물어봤더니, 약 93%가 '**매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매너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합니다.

에티켓이 행동의 기준이라면 매너는 에티켓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골프 라운드를 하면서 동반자의 마음을 여는 에티켓과 매너로 즐거운 라운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함께

김준규(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



시간은 무엇인가? 시간이라는 단어 뒤에는 많은 수식어가 붙는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유성처럼 빠르다’, ‘시간은 무상하다’, ‘시간은 유수와 같다’ 등 시간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의미에는 지나간 과거는 미래에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물리적 현상에 기인한다.

중력이 없는 망망대해 우주에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었다. 곳곳에 화산이 터져 용암이 흘러 내리고, 대륙이 이동하고 빙하기를 거치면서 바닷물이 잠잠해지는 동안 생명의 태동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생명체가 없고 물과 흙과 바위가 천지를 뒤덮는 무생물의 세계였다면 지금과 같은 시간이 존재했을까? 시간은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서부터 고등동물인 인간이 인위적으로 고안한 결과물이다. 인간의 활동이 시작되는 원시시대에 일출과 일몰을 통해서 하루의 길이를 계산하였고, 달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월(30일)을 정하고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여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고 월동을 되풀이하는 동안, 변화하는 절기마다 기후의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고 1년의 길이를 정해 놓았다.

생명체는 모든 종류마다 다른 길이의 일생을 갖고 태어난다. 생존하는 시간 또한 천차만별하다. 타고난 유전자적 조건, 혹은 환경적 요건에 따라 아주 오래 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단명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식물의 경우 몇천 년을 사는 것도 있고 몇백 년을 사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단 하루 만에 태어나고 죽는 동물도 있다. (하루살이) 생명체는 쉽 없이 심장을 움직이고 산소를 호흡하고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며 생명을 유지한다. 생명과 시간은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기관차처럼 어떤 종착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

초등학교 운동회에는 학생과 부모가 다리에 끈을 묶어 어깨동무하고 함께 발을 맞추며 뛰는 종목이 있다. 보폭의 길이나 속도가 맞지 않으면 전진할 수도 없고 쓰러지게 된다. 이렇듯 생명체에게 부여된 시간이라는 화살표는 언제나 함께 움직이며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곳은 예정되지 않은 미래이며 생명체의 종착지다. 생명체에게 죽고 사는 문제는 인위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탄생하고 주어진 조건에 순종하며 일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개체에게 시간의 영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 보았던 아름다운 세상에 감탄하며 생존을 위해서 먹고 일하고 사랑하며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배우고 경쟁하던 순간은 일생의 절정기라 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착하고 푸른 지구의 탄생은 어디에서 왔을까? 알 수 없는 시점에 태양으로 부터 3번째 행성으로 자리하고 적당한 온도와 수분을 함유하며 수십억 년의 침묵 끝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비옥한 터전으로 변모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인 지구라는 행성도 탄생과 종말의 과정을 시간과 함께 가고 있다. 지구의 기나긴 나이에 비하면 생명체의 일생은 찰나의 순간이다.

그러나 한 생명의 존재는 소중한 아름답다. 애환으로 점철된 파란만장한 생애도 생을 다하는 순간, 시간 또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 전체로” 현지화 전략으로 성장 이끄는 신창근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장



인구 3억, 세계 4위 수준의 젊은 투자자 비율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미지의 시장’이 아니다. 글로벌 증권사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곳에서, 한국의 키움증권이 현지 법인(PT Kiwoom Sekuritas Indonesia)을 중심으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발로 뛰고 있는 인물이 바로 신창근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장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2010년, 동서증권을 인수하며 인도네시아 시장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13년간 로컬 중심의 전략을 펼치며 현지 금융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장해왔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자산 규모 370억 원, 시장 점유율 38위권 증권사로 자리매김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시장 환경이지만, 신 법인장은 오히려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살아 있는 시장**”이라 강조한다.

신 법인장은 자카르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로컬 인사이트형 리더**’다.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뒤, 한국투자증권에서 기획조정실·퇴직연금·신사업 등 핵심 부서를 거치며 자본시장 실무를 익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키움증권에 합류해 인도네시아 법인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현지 문화와 언어, 그리고 금융에 대한 통찰을 모두 갖춘 그에게 ‘**현지화 전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투자 세미나 개최, 대학 투자 동아리와의 협업,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저희는 항상 인도네시아 청년 투자자와의 접점을 고민합니다. 이들과 소통하고, 시장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진짜 ‘현지 법인’이라 할 수 있죠.”

2024년 키움은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전면 개편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HERO’**를 출시했다. 인도네시아어 지원은 물론, 추천 종목·보유자산·시장 정보 등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출시 1년 만에 17,000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며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2025년은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에 있어 ‘**전략적 확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은 최근 싱가포르에 현지 자산운용사를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법인과의 역할 분담 및 시너지 강화로 동남아 금융시장 통합 공략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브로커리지 확대, 고객 기반 다변화, 자본금 증자, IB(투자은행) 라이선스 취득까지 다양한 전략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 후진국’이라 불리던 인도네시아는 지금, 급속도로 선진 금융 대중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그 물결의 최전선에는 **자카르타 토박이**이자, 동남아 자본시장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금융 전문가**, 신창근 법인장이 우뚝 서 있다.

#자카르타에서시작된길 #자본시장입문기 #청춘의플래팅 #리스크와균형의미학 #성장의시간

Q. 자카르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간들이 지금의 리더십이나 일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준 것 같나요?

저는 유년 시절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보냈습니다. 당시 한국국제학교에 다니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혔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문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 덕분에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고, 지금은 조직 내 다양한 팀원들과의 협업에서도 그때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며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년기의 경험들이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Q.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시고 증권업에 들어서신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처음 자본시장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를 공유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 자연스럽게 체육 교사를 꿈꾸며 사범대에 진학했고, 졸업시험을 준비할 때까지 해도 그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 전역 후 우연히 과 선배의 주

천으로 참여한 증권사 인턴십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 재산을 투자한 경험을 통해 금융업이 단순한 숫자나 투자 분석을 넘어, 시장과 사람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분야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 흥미와 가능성을 계기로 과감히 진로를 증권업으로 전환했고, 지금까지도 그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Q. 20대에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셨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시기의 도전과 시행착오가 지금의 투자 철학에 어떤 영향을 남겼나요?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당시에는 다소 공격적인 성향으로 접근했고, 그로 인해 손실을 겪은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제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일깨워준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시장을 단순한 수익의 수단이 아닌, 고객의 자산을 지키며 성장시키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이는 제 업무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Q. 지금의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 50%, 부동산 30%, 펀드 20%)을 보면, 꽤 명확한 철학이 느껴집니다. 주식·부동산·펀드라는 이 조합은 어떤 고민 끝에 완성된 건가요?

현재 제 포트폴리오는 주식 50%, 부동산 30%, 펀드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





적인 수익률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물론 이는 저의 재정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춘 결과이며, 모든 투자는 개인의 목표와 리스크 감수성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과거엔 더 공격적인 스타일이었지만, 자녀 교육비와 미래 지출을 고려하면서 점차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조정해왔습니다. 투자에 정답은 없지만, 삶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을 조율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전략 #비즈니스전환점 #핀테크혁신 #동남아시아 #키움의비전

Q. 2010년부터 현지에서 뿌리를 내려온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그동안 여러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키움증권 인도네시아는 2010년 현지 소형 증권사 인수 이후 15년간 꾸준히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저는 2018년 한국본사에서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발령받아 8년째 현지에서 근무 중이며, 2023년 5월 법인장 취임을 전환점으로 삼아 회사를 기관 중심에서 리테일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SNS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고객 접점 채널 다각화, 거래 플랫폼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2024년 한 해 동안 27,000명 신규 고객을 유치하며 전략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인도네시아 유력 언론사인 Infobank로부터 ‘Digital Brand’ 부문 베스트 증권사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Q. ‘뉴 히어로’ 트레이딩 앱은 단순한 거래 플랫폼 그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앱을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거래 플랫폼은 키움증권이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객들과 함께 다듬어온, 검증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의 사용 패턴과 니즈에 맞게 현지화하여 개발했기 때문에, 기술력과 편의성을 모두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차트 구성과 보기 쉬운 화면,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처음 투자하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인도네시아 개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리테일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Q. 앞으로 5년, 키움증권 인도네시아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어떤 역할과 포지션을 꿈꾸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법인장으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5년은 키움증권 인도네시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성장도 물론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플랫폼을 개선하고, 보다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에서 키움증권이 신뢰받는 리테일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컬인사이트 #브랜드차별성 #공감형리더십
#핵심역량 #Z세대소통전략

Q. 키움증권 인도네시아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이건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요?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그렇기에 리테일 후발주자인 키움증권 인도네시아는,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적은 ‘뉴비’ 고객을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직관적인 UI 설계, 맞춤형 콘텐츠,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좌 개설을 넘어, 고객이 실제로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투자 자체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전략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투자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리테일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Q. 현지 대학생 투자 동아리 지원부터 인플루언서 협업까지, 꽤 인상적인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내 타 증권사들에 비해 영업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규모 마케팅보다는 투자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그리고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형 투자 세미나’나 항공사 견학을 결합한 체험형 행사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과 진행한 투자 세미나에서는 단 하루 만에 3,000개 계좌가 개설되며 인도네시아 기네스북(MURI)에 공식 등재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수치를 넘어, ‘투자’라는 개념을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저희의 진정성이 고객에게 잘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Q. 현지 팀과의 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칙이나 가치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팀워크를 이끄는 리더로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조직의 성과는 결국 팀워크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법인장으로서 저는 유연하고 열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업무 외적인 대화도 나누며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런 신뢰는 조직문화로 이어지고, 원활한 소통과 상호 존중, 자율적인 책임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끕니다.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지속 가능한 조직 성장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Q. 직접 고객 피드백을 반영해 만든 HTS·MTS 시스템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인상 깊었던 반응이 있었을까요?

작년에 런칭한 신규 거래 매체는 한국에서 검증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단순한 복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고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과 화면 구성을 파악하고, 그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현지화된 형태로 재설계했



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기보다는,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빠르게 반영하는 데 집중했던 개발 과정이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런칭 이후 고객들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었고, 특히 ‘이전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해졌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들의 사용 경험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계속 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투자세대 #2030커넥트 #투자철학 #좋은 선택의기준 #미래를여는전략

Q. 2030세대는 이제 투자 시장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죠. 청년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키움증권 인도네시아만의 접근 방식이나 전략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2030 세대에게 있어 투자의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을수록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뿐 아니라, 실령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한 ‘K-Move 스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tma Jaya 대학교에서 실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Q. 때로는 한 문장이 평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법인장님의 20대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막 시작점에 선 인도네시아 청년 투자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투자는 삶의 일부’ 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자산 증식 수단을 넘어, 투자란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 같은 다양한 감정을 겪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25세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 투자라는 활동은 제 삶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투자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준비 없는 투자는 오히려 소중한 자산을 위협하게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올바른 투자 교육과 명확한 목표 설정 및 리스크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투자라는 긴 여정을 더 현명하고 자신 있게 걸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Q. “나쁜 시장은 피할 수 없지만, 나쁜 선택은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인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선택’이란, 어떤 선택일까요?

좋은 투자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그 선택지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투자할수록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포트폴리오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선 단순한 이론보다 직접 경험이 필수적이며, 그 경험이 곧 나만의 투자 철학이 됩니다.

Q. 인도네시아에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 한국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요?

저는 늘 후배들에게 ‘많이 부딪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계획에 머무르지 말

고 작게라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하더라도 움직이는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전의 첫걸음입니다.

#내일을설계하는시선 #나를만든순간들 #지금 만나러오세요

Q.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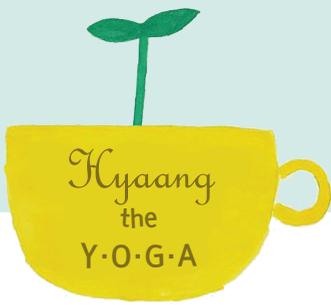
저 역시 한 조직의 리더가 되면서, 리더십의 어려움과 무게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까지 오랜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용기’와 ‘결단력’입니다. 특히 쉬워 보이는 일일수록 한 번 더 살피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험상, 오히려 그런 일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분명 자본시장의 잠재 성장력이 큰 곳입니다. 하

지만 동시에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럴수록 더 냉정한 판단력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지인들과의 원활한 네트워킹과 소통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구사는 필수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분명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Q. 끝으로,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요즘 인도네시아는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참으로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과 노하우로 잘 극복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키움증권 인도네시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투자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인도네시아 주식투자는 쉽지는 않지만 우량주 위주로 차근차근 접근해간다면 충분히 가능성과 큰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yaang, the yoga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가버디 michelle입니다.

나마스떼



반가워요. 향기님들! 6월, 활기찬 시작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전사자세 중 가슴을 열고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겸손한 전사자세’
Badda Virabhadrasana입니다.

Virabhadrasana는 요가의 신인 Siva의 몸에서 나온 강력한 전사의 이름이지요.

“시바의 아내인 삭티는 시바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다크샤(Daksha)는 시바를 싫어해서 결혼을 반대했다. 어느 날 다크샤는 잔치를 열어 신들을 초대했고 그 신들앞에서 시바를 모욕했다. 이에 분노한 삭티는 자신의 몸을 있게 한 아버지를 원망하며 스스로 불에 들어가 자살을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시바가 분노와 슬픔에 괴로워하며 머리카락을 뜯어 바닥에 던지자 거기에서 강력한 전사인 비라바드라가 나왔다. 그리고 비라바드라에게 다크샤와 잔치에 온 모든 신들을 처치하라고 명령한다.”

<비라바드라와 다크샤> 출처; 위키피디아

이번 달부터 중급으로 업! 모르는 동작은 이전 칼럼을 참고하세요.

힘이 더 들겠지만 초급도 따라할 수 있어요! 모두 부상위험 없는 동작이니깐요.

● 목표 동작: 겸손한 전사 (Humble Warrior/Baddha Virabhadrasana)

- 총 수련시간 : 약20분~30분
- 효과
- ◆ 허벅지, 엉덩이 근육강화
- ◆ 가슴과 어깨 등의 유연성 증가
- ◆ 균형 능력 강화
- ◆ 모든 요가 동작이 그러하듯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줄이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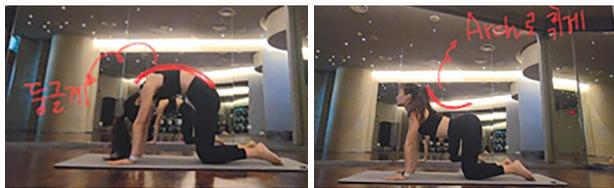
장담하건데 허벅지 속근육 키우는 데 최고의 동작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만 해보세요!
한달 뒤, 당신의 허벅지는 돌덩이가 될 것입니다.
자, 매트잡고 펼치세요.

Phase 1 워밍업

몸을 따뜻하고 말랑하게 만드는 워밍업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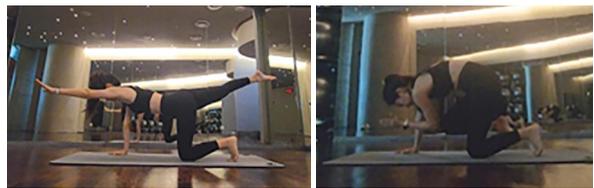
1. Cat & Cow (등 둥글게 말았다가 반대로 휘기)
2. 팔다리 교차로 들었다 구부리기 x 반대쪽
3. 무릎 떼고 테이블 탑→다운독

● [Cat & Cow] X 4 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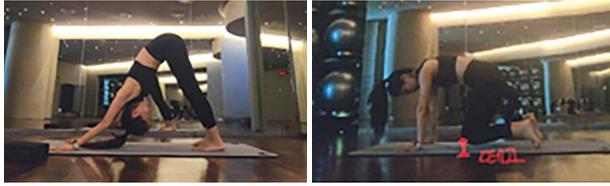
1. Cat Pose (고양이자세) 2. Cow Pose (소자세)

● 팔다리 교차로 들었다 구부리기 x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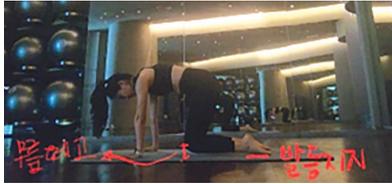


3. 테이블탑에서 왼팔 오른다리 들기 4. 팔꿈치와 무릎닿기

● [다운독 & 무릎 떼고 테이블탑] x 10 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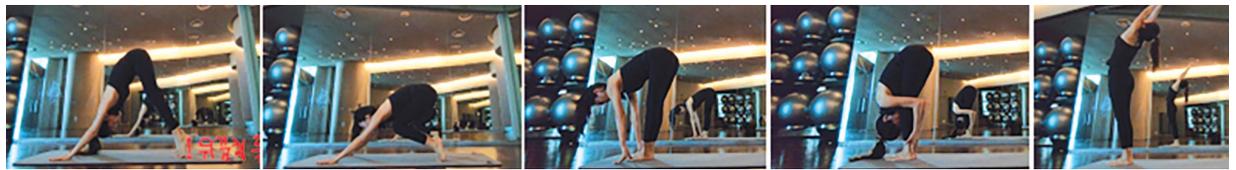


5. Adho Mukha Svanasana (다운독)
6. 무릎 떼고 테이블탑 x 10회
7. 10회 반복 후 마지막은 발등 펴고 발등으로 닫고, 무릎 떼고 테이블탑, 10초 이상!



그리고, Vinyasa 요가 수련 중 다음 흐름으로 넘어갈 때 반복되는 트랜지션 동작

★ Vinyasa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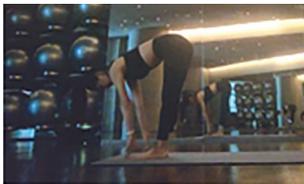
8. 뒤꿈치들고 → 무릎구부리고 손과 손사이를 보면서 → 그대로 앞으로 점프 → Uttanasana상하체 밀착 → 야자수자세

Phase 2 Build-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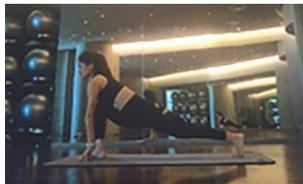
목표 동작을 하기 전 몸을 준비시키는 동작

1. 태양경배자세 (Surya Namaskara)
2. 세 다리 개자세 (Adho Mukha Svanasana)
3. 도마뱀자세 (Utthan Pristhas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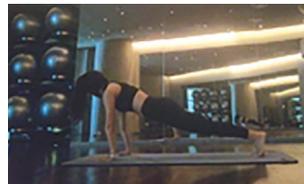
● 태양경배자세 (Surya Namaskara/ Sun Salu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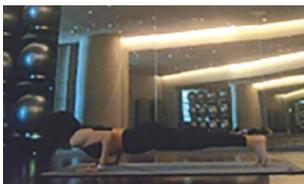
1. 반 앞으로 접기
(Ardha Uttanasana)
무릎과 등을 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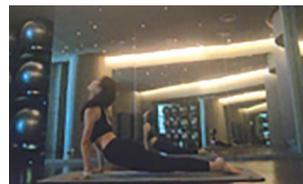
2. Runners Lunge
왼다리 뒤로 뺀고 손 짚고
상체 최대한 세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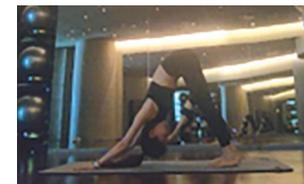
3. 플랭크
코어 반듯하게, 어깨와 귀는 멀게 합니다.



4. 차투랑가
팔만 직각으로 내려오며
몸은 반듯하게 유지



5. 업독 혹은 코브라
상체를 뒤로 젖히고
(무릎을 떼면 더 깊게 젖힐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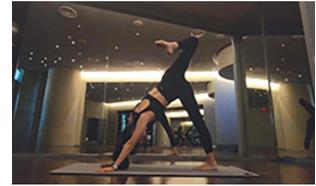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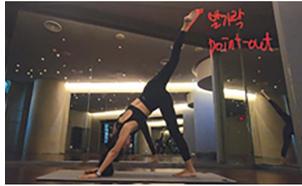
6. 다운독
코어 힘, 어깨와 위 멀게, 내쉬며 상체 더 낮게

● 세 다리 개자세 (3 Legged Dog)

7. 3 Legged Dog

다리 쪽 펴고 발가락 끝까지 힘을 줍니다

8. 다리를 뒤로 구부립니다



● 도마뱀자세 (Lizard Pose)



8. 도마뱀자세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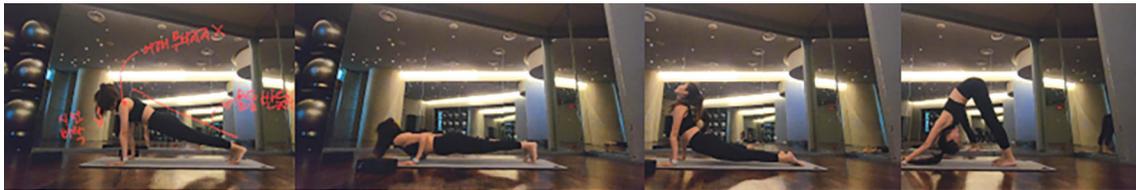
오른발을 오른손 바깥에 놓는다. 발 날개로 닫고 몸 통으로 지그시 누른 후 바운스바운스

9. 몸이 유연해지면 팔꿈치를 바닥에 댑니다.

//////////////////////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

그리고 다음 동작으로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한 또하나의 트랜지션 동작

● 차투랑가 플로우



10. 플랭크

→ 차투랑가 단다사나

→ 업독

→ 다운독

Phase 3 Pre-Pose

목표동작 전 단계, 유연성과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1. 전사1 (Virabhadrasana 1)-전사2(Virabhadrasana 2)
2. Dancing Warrior(전사2→평화로운 전사→전사2→사이드앵글) X4
3. High Lunge & 팔 휘젓기

● 전사1-전사2 (Virabhadrasana/War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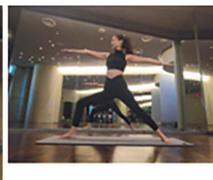
1. 전사 1

골반과 앞발 같은 방향, 뒷발은 45도, 무릎직각, 상체 꼴꼴이, 손 하늘위로 쪽

2. 전사 2

뒷발 열고 골반도 연다. 앞다리 직각으로 구부린다. 손 앞뒤로 쪽 뺀고, 시선은 앞손을 바라봅니다.

● Dancing Warrior (평화로운전사 → 전사2 → 사이드앵글 → 전사2) X4



3. 평화로운 전사

→ 전사2

4. 사이드 앵글(side angle)

→ 전사2

뒤로 뺀 손, 반대쪽 허리 감싸고 다른 팔은 귀 옆으로 쪽 뺍니다.

● High Lunge & 팔휘젓기 x4



7. High Lunge

골반을 닫고 뒷발가락으로 짚고
두 손을 하늘로 쭉 뻗습니다.

8. 팔을 뒤로 보내면서 크게 휘저으며

다시 하늘위로 쭉, 4회 반복

//////////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

Phase 4 Target Pose & Cool Down

목표 동작!

1. 전사1-겸손한전사자세

2. 시체 자세(savas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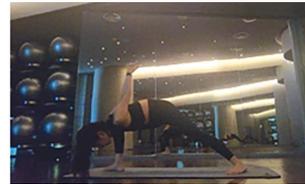
● 겸손한전사자세



1. 전사 1



2. 두 팔 뒤로 보내고
각지 깎니다



3. 상체 천천히 낮추면서
손각지 하늘 위로, 어깨가 무릎높이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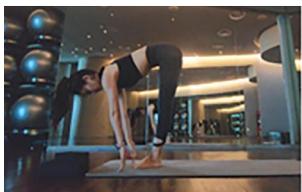


어깨와 무릎이 닿지 않게 하고 시선은 땅을 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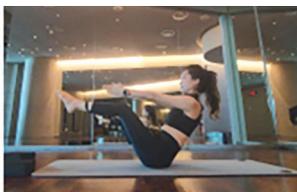
30초 정도는 금방이죠!

//////////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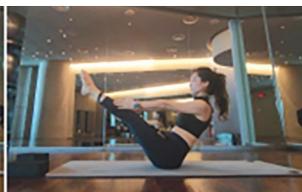
● Savasana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바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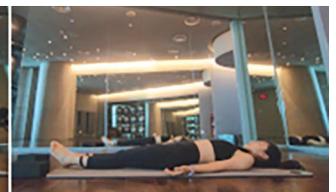
1. 반 선 전굴자세
(Ardha Uttanasana)



2. 반 접은 배 자세
(Ardha Navasana)



3. 배 자세 (Navasana)
등을 곧게 펴니다.



4. 시체자세 (Savasana)
손바닥 하늘 위로,
온 몸의 힘을 뺍니다

Namaste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을...

Yoga instructor, Michelle Yoga class <Hyaang, the Yoga>

그룹 및 개인수련 문의는 카톡 'tidapapa'로 문의주세요



Michelle Yang
HYAANG. THE YOGA

[취미부자 열정고수]



전직 패션디자이너 김루치아의 매일 열리는 소소한 전시회

김 루치아 (주부)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 속에서 저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손끝으로 뭔가를 만들고, 때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며, 초록빛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저의 취미 생활을 살짝 들려드릴게요.

손끝에서 피어나는 나의 작은 예술

저는 손으로 꼬지락거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요즘 폭 빠져 있는 건 바로 가죽공예인데요. 튼튼한 가죽으로 지갑이나 가방을 만들 때면, 가죽의 질감과 향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포근한 감성을 좋아하는 저는 켈트도 즐겨해요. 알록달록한 천 조각들이 모여 예쁜 이불이나 소품이 되는 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담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도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시간이 주는 행복,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은 정말 최고랍니다!

그리고 저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취미도 있어요. 바로 캐릭터 의상 꾸미기인데요! 매년 아이들 학교에서 북캐릭터 행사가 있을 때면, 캐릭터의 옷을 직접 만들거나 기존 옷을 캐릭터 스타일에 맞게 변형 디자인 해봅니다. 예전 디자인실에서 일했던 기억이 나며 제에게 큰 성취감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줍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

바로 길고양이 돌보기인데요. 동네를 오가다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길냥이 손님에게 밥을 챙겨주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어요. 털 알르레기 때문에 집 안에서 돌볼 수 없지만 아이들이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것보다 큰 보람을 느껴요. 얼마 전에 아기 냥이 4마리 모두 좋은 곳으로 입양되어 되어 정말 기뻐어요.

그리고 귀여운 오리 밥 주기도 저의 작은 행복 중 하나예요. 졸졸 따라오는 오리들에게 밥을 주며 교감하는 시간은 일상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안겨준답니다.



초록빛 힐링, 화초 가꾸기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화초 가꾸기도 빼놓을 수 없죠. 푸릇푸릇한 화초들을 정성껏 돌보며 생명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정말 큰 힐링이 돼요. 싱그러운 초록빛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화초들이 주는 활력 덕분에 매일매일이 더 즐거워진답니다!



이처럼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저는 매일매일 특별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신가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로 살아가는 통번역사의 이야기 1

나의 첫 한국 회사 도전기



월루즈 에라닝띠아스 (아중)

통번역사, System Ever Indonesia

“꿈은 잠시 접어두고… 나는 한국어로 일하기로 했다.”

엊그제 같던 2024년이 지나고, 나는 이제 또 다른 삶의 장면 속에서 눈을 떴다.

한국 유학을 가고 싶다는 오랜 꿈, 그리고 올해는 꼭 입학하겠다고 다짐했던 나.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회사로부터 입사 소식을 받게 되었다. 인생의 또 다른 갈림길에 선 셈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좀 췌다. 16살부터 품어온 유학의 꿈이 내겐 우선이었다. 직장 생활은 그 다음이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때 케이팝과 케이드라마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어를 몰라서 방송을 봤을 때 인도네시아어와 영어 자막을 꼭 붙였다. 이 답답함을 풀 방법은 하나였다. 이 언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온라인 한국어 수업이 많지 않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집이나 교실에서 유튜브와 한국어 공부 웹사이트 보고 한국어를 곳곳하게 공부했다. 당연히 매일 한국 방송과 노래를 즐기면서 새로운 어휘도 배웠다.

그만큼 한국어 공부를 누구보다 좋아했고, 주변에서도 “한국어 잘한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지만 정작 나는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통번역사로서 자신이 없었다. 아무리 여러 번 그런 말을 해도, 아무도 내 상황을 이해하지못한다는 생각에 답답했다.

결국,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어떤 선택이 더 맞을 것 같아? 유학, 아니면 직장?”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장이지. 너 유학 장학금도 세 번이나 지원했다가 떨어졌잖아. 이젠 돈도 별로, 엄마도 좀 도와주고, 네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게 좋잖아.”

엄마의 말에 나는 다시 물었다.

“근데 난 아직 자신이 없단 말이야. 일을 할 때 실수하면 어떡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상사나 동료들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라고. 넌 한국어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 너무 기죽지 마. 너 자신을 믿어봐.”

물론 지금은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통번역사는 또 다른 차원의 능력자라고 나는 믿는다. 한국어학과 졸업생 아니었어도 용기를 내서 작년 7월부터 수라바야 한국 문화 센터에서 온라인 한국어 강사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기초-중급 학



생들을 줌 플랫폼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한국에 대한 얘기, 열정, 꿈까지 듣고, 마치 16살인 나를 본 것 같다. ‘강사’ 라는 직업은 내게 어둠 속에서 비춰준 빛과도 같다. 그래서 쉽게 그만둘 수 없다. 많이 벌 수는 없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내게 큰 축복이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나도 믿는다. 엄마는 늘 옳다.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나도 믿고 싶었다. 그런데 가끔은 머릿속에 무서운 상상들이 떠올랐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점점 커졌다.

25살. 나에게도 ‘오춘기’ 가 찾아온 걸까. 그 와중에 지방에서 수도로 이사하게 되면 혼자 살아야 하고, 과연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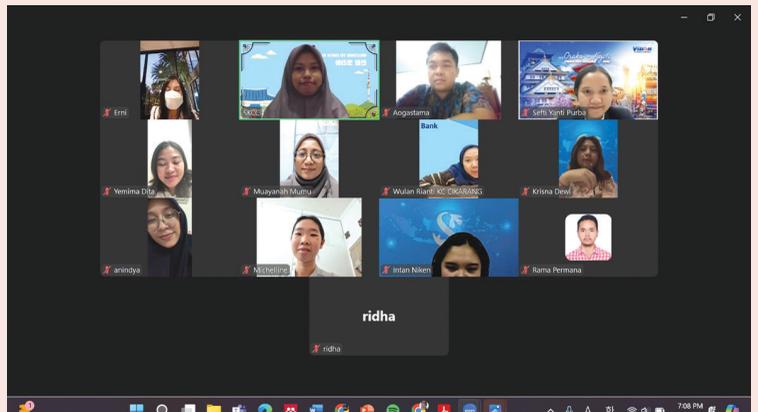
그럼에도 나는 직장을 선택했다. “그래, 해보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계속하면서, 반드시 성공한 여자가 될 거라고 다짐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다. 그리고 세상 대부분의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회가 내 앞에 왔다는 건, 그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내 실력이 그만큼 충분하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다.

나는 유학의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잠시, 순서가 바뀐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 지금은 온라인 강사를 하면서 2월부터 ERP(전사적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 (주) 영림원이라는 한국 회사의 인도네시아 법인, PT System Ever Indonesia에서 통번역사로 취업했다. 한 달 동안 자카르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나 이키 신발 생산하는 회사와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수카부미로 내려갔다.

나는 회사 안에서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사이의 소통을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직장 생활은 물론 복잡하다. 매주 1-3번이나 회의 통역사로 맡으면서 새로운 단어에 당황한 적도 있다. 하지만 엄마 말씀에 따라 주재원에게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라는 말이 필수다. 빠른 발음과 억양도 또 다른 장애물이다. 회의 끝나고 회의록, 문서 등 번역 업무도 한다. ERP 시스템 그리고 신발 공정, 나에게서는 새롭고 정말 큰 도전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짜릿함” 이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어와 모국어를 매일 쓸 수 있다는 점이 참 행복하다.



제14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

모국어로 빛은 이야기, 인도네시아의 풍경이 되다

2025. 06.01 (일) ~ 07.15 (화) 18:00 마감

2010년 첫 씨앗을 심은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이 어느덧 열네 번째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글이 숲이 되고, 시가 길이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국어로 직조된 삶의 서사를 발굴해 왔습니다. △소설 △수필 △시 - 장르를 넘어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 공모 주제 : 내가 경험한 인도네시아 문화, 내가 만난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세안 등
- 공모 대상 : 학생부 (중·고등학생) 및 일반부 (대학생·성인)
 ※ 성인부 대상(혹은 최우수상)은 한국문예지에 등단 기회 부여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ikcskr@gmail.com과 ikcsaward@naver.com
 동시 송부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학년 표기)
 ●한글 파일, 산문 A4 3쪽~4쪽 / 운문 2편 (맑은고딕 10p, 행간 160%)
 ●순수 창작물 (발표되었거나 표절 작품은 당선 취소)
- 시상식 및 문화행사 : 9월 13일(토)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나래홀(예정)
- 시상 내용 : 인원 미정 / 상장 및 상금



구분	일반부	학생부
대상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상	주ASEAN 대한민국대표부 대사상
최우수상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상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우수상	재인한인중소벤처기업협의회장상	무궁화 유통 기업상
특별상	인도네시아 예술가상	인도네시아 갤러리 F. Widayanto상
	Indonesia Korea Friendship Association	Historika Indonesia
장려상	한인니문화연구원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시상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문의처 : 081-1104-8140 zemmachaejkt@gmail.com



제4회

생태이야기 공모전

2025년 06.01(일) ~ 07.15(화) 18:00 마감

- 참가 자격** · 인도네시아 거주 초등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
- 공모 주제** · 인도네시아의 숲과 나무, 생태와 관련된 이야기
· 인도네시아 거주 이야기 (체험수기, 동화, 동시 등)
- 제출 방법** · 산문 A4 3쪽~5쪽 / 운문 2편 이상 (맑은고딕 10p, 행간 160%)
· 한글 또는 MS워드 (hwp, doc),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작품명
- 발표 및 시상식** · 2021mothernature@gmail.com, ikcskr@gmail.com 동시 송부
· 발표 7월 말 / 시상식 9월 13일(토)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나래홀
- 시상 내역** · 상장 및 상금 (시상 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구분	한국 초등학생	인도네시아 초등학생
대상	한-인니산림협력센터장상	한인니문화연구원상
최우수상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한-인니산림협력센터상
우수상	한-인니산림협력센터상	KF사무소 소장상

- 문의 사항** · 081 111 7230 / 카카오톡 jaerin202
· 2021mothernature@gmail.com



나도 나 예쁜거 알아 ㅎㅎ

- 이름: 강쿠키 (데려왔을 당시 입에서 쿠키 향이 나서 쿠키로)

- 생년월일: 2017년 3월 17일

- 종: 미니어처 푸들 (입양 할 때 주인이 토이 푸들이라고 했는데 키워보니 미니어처)

- 특징: 완벽한 비율 (얼굴+몸매),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마성의 눈동자, 낮에는 엄마 껌딱지 밤에는 아빠 껌딱지

첫 만남...

펫 숍에서 처음 봤을 때, 정말 작은 강아지가 밥도 안 먹고 구석에 움츠리고만 있었고 건강하고 활발하게 노는 아이들보다 더 눈이 가던 아이였어요.

그 다음날 구석에 있던 꼬맹이가 계속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방문하였고 그날 역시 아무 것도 안 먹고 구석 그 자세 그대로ㅠㅠ

또 그 다음날... 머릿속에서 그 모습이 떠나지 않아 다시 방문하였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서 상태가 안 좋아 죽을 수도 있어서 분양할 수 없다고 하는 주인을 설득해 절대로 컴플레인 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어요.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강아지가 엄마랑 헤어지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평생 가족을 약속하며 데려온 소중한 우리 집 막내.

우리 쿠키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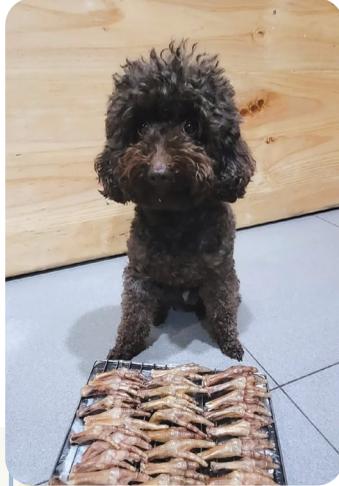
사람한테 붙임성이 엄청 좋아요.

누구를 만나도 사랑받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친한척하는데 도가 텃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 집을 방문하시면 다 겪어야하는 쿠키의 인사법은 당황할 만큼 격하답니다.





다른 푸들은 따라할 수 없는 높은 점프력과 격하게 흔드는 엉덩이 꼭 자기를 쳐다보아야 하고 만져줘야 끝이 나요.

한 1분 정도의 인사가 끝나야 비로소 쿠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ㅎㅎ

우리 쿠키는 식구들의 옷을 보고 출근하는지, 학교에 가는지, 산책하는지... 딱 알아요. 그래서 아빠의 출근과 퇴근에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요. 아침마다 아빠는 쿠키한테 서운하다고 하시고 나가세요.

개인기도 많아서 어딜 가나 인기 만점!!

잘 때는 꼭 막내 언니 침대와 베개를 써야 해요, 덕분에 막내언니는 가끔 침대구석에서 자야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잘 때 꼭 같이 자요.

지금은 둘도 없는 룸메이트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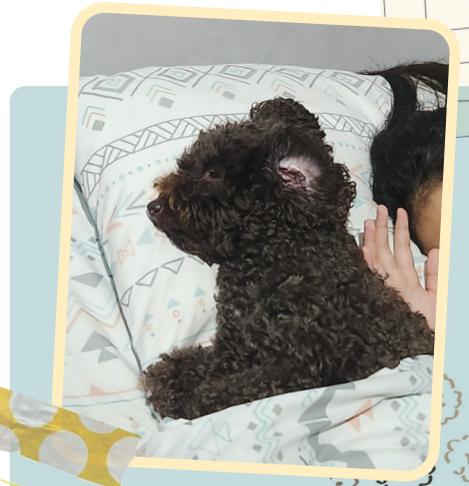
쿠키와 함께한 8년 2개월 지금까지도 쿠키 덕분에 가족이 더 행복했고 앞으로도 쿠키랑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쿠키의 일상생활이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life_of_cookie_jkt) 놀러오세요~

매력만점 쿠키와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요 ♥

랜선집사: 강효정, 강현준, 강소연, 강진호





세계 33위, 인도네시아 유일의 Top 50 IB 스쿨 Sinarmas World Academy (SWA)

이영미 (한인뉴스 편집위원)

주목할 만한 성과

2024년 국제 바칼로레아(IB) 디플로마 성적 발표에서 **Sinarmas World Academy (SWA)**가 평균 점수 38.2점을 기록하며 전 세계 IB 학교 순위 33위에 올랐다.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세계 Top 50 IB 스쿨에 등재된 SWA는 명실공히 ‘글로벌 최상위권 국제학교’ 반열에 진입했다. SWA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바로 학문적 탁월성과 전인적 교육, 미래역량 중심의 학습 비전을 모두 실현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글로벌 교육 플랫폼, Sinarmas World Academy (SWA)

2008년 BSD 시티에 설립된 SWA는 6개월 영아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IB와 Cambridge 커

리큘럼을 아우르는 인도네시아 대표 국제학교다. Cambridge Primary, Checkpoint, IB MYP, IB DP를 포함한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진로 기반 교육 프로그램인 BEST Pathways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진로에 맞춘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10학년에 ‘개인 프로젝트 (Personal Project)’를 수행하고, 11~12학년에는 Extended Essay와 CAS (Creativity, Activity, Service) 창의, 활동, 봉사 활동을 통해 학교 안에서 배운 것들을 직접 활용해보고, 체험 학습을 통해 대인 관계 기술을 계발한다. SWA는 모든 학생이 창의적, 신체적, 사회적 및 지역 사회 기반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 주도 또는 교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며, 자기주도성과 협업 능력을 함께 키운다.

SWA만의 차별화된 교육 경쟁력

◆BEST Pathways (Business, Engineering, Science Technology, Arts)

SWA 고유의 BEST Pathways 프로그램은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라 수업 및 활동을 맞춤 설계한다. 정기적인 역량 분석 및 멘토링을 통해 학문적 강점과 진로 방향성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문 대학진학 카운슬링 시스템(UGC)

진로 설계부터 글로벌 대학 진학까지 전담 카운슬러가 함께하는 UGC (University Guidance Counsellor) 시스템은 학생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한다.

◆시나르마스 그룹과의 산업 협력

인도네시아 대표 재계 그룹인 시나르마스 그룹의 지원 아래, SWA 학생들은 실무 멘토링, 인턴십,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다양한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된 교육을 경험한다.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미래 사회를 위한 핵심 역량을 갖추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SWA 초등부 교장 Ms. Kelly

글로벌리더로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SWA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를 길러내는 ‘교육의 출발점 (launchpad)’ 이다. 매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선발해 진행하는 TEDxYouth@SWA를 비롯해, World Scholar’s Cup (WSC), WMI, Waterloo Junior Math Contests 등 수학·과학 분야의 국제 올림피아드, 그리고 WRO (World Robot Olympiad), FRC (FIRST Robotics Competition)와 같은 세계적인 로봇 대회에 이르기까지, SWA 학생들은 다양한 글로벌 무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IB MYP Student Innovators’ Award 수상, 일본 STEM 리서치 포럼 참가 등으로 SWA는 지식과 행동이 잘 결합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가 2025년 졸업 예정자인 에이든 하오켄 (Ayden Haoken)이다. 하버드, 스탠퍼드, UC버클리를 포함한 세계 우수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동시 합격한 이 학생은 ‘2024 RISE 글로벌 수상자’ 로도 선정돼 ‘세계 100대 청소년 혁신





가 (the world's top 100 young changemakers)에 이름을 올렸다.

“에이든의 성장은 SWA가 성적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환경의식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SWA 재단 데디 드자자 리아 이사장 (Deddy Djaja Ria, Chairman of SWA Foundation)

지속가능한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힘: Lead the Change, Live the Legacy

끊임없는 혁신과 실천 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SWA는 학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학문은 물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제공한다.

BEST Pathways로 설계된 진로 중심 교육, 시나르마스 그룹과 연계된 실전 경험,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발휘되는 영향력. 이 모든 것이 SWA를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SWA는 한국인 학생과 커뮤니티를 깊이 존중하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 전반에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는 초등학교 학생회장이, 지난해에는 중·고등학교 학생회장이 한국 학생이었으며, 이는 국적이나 성적이 아닌 리더십과 참여 의지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선발 기준을 잘 보여준다. 학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일부 학생만을 대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 대회나 학생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각종 경시대회 참가자들은 신청 후 한 달

에서 두 달간 방과후 준비반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과 지도를 받는다. 이러한 내부 시스템 덕분에 SWA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과외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



합격 대학 리스트

Proudly Accepted into:

HARVARD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Penn STATE UNIVERS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URDUE UNIVERSITY

UNIVERSITY OF WASHINGTON

UC San Diego

UCLA

"합격을 4% 미만 하버드"
"스탠퍼드 인도네시아 합격생 극소수"

- Harvard University (Full Scholarship)
- Stanford University (Merit Scholarship)
- UC Berkeley (Dean & Chancellor's Scholarship)

JKCC
13th



음표가 모여 심표가 되는 시간

자카르타한인 어린이합창단

평기연주회

2025. 6. 7. 토 16:30

늘푸른교회 2층 본당

YAYASAN HIJAU ABADI EVER GREEN MAIN CHAPLE 2F



JAKARTA KOREAN CHILDREN'S CHOIR



JKWC
Jakarta Korean Women's Choir
자카르타 한인 여성 합창단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두 젊은이들의 새로운 도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 바람을

자카르타에 전하다 3

글: 고성환, 정성환(ILT 공동대표)

(주)일트의 실제 부동산 투자 사례: 현장 중심 전략과 실행의 기록

현장에 답이 있다: 실전 투자로 증명한 전략의 힘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금리, 정책 변화, 시장 심리의 요동 속에서 투자자는 단순한 ‘타이밍’이 아닌 ‘구조’와 ‘실행력’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주)일트는 지난 2년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매, 공매, 일반매매, NPL 등 여러 방식으로 실제 투자를 집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구체적 실행 사례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유형과 지역, 투자 방식의 조합

(주)일트가 투자한 10개 부동산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위치	물건종류	거래방법
1	인천 주안동	다세대	경매
2	여수 화장동	아파트	경매
3	서울 영등포	도시형 생활주택	경매
4	경기 하남	오피스텔	경매
5	인천 도화동	오피스텔	일반매매
6	인천 주안동	오피스텔	공매
7	동탄 반송동	오피스텔	경매
8	부산 서면 1	오피스텔	경매
9	부산 서면 2	오피스텔	경매
10	서울 성북동	다세대	경매 + NPL 용합

이 리스트는 단순히 물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시장 상황과 투자 전략, 그리고 구조화된 실행 방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실전 사례로 본 투자 전략

경매와 공매의 적극적 활용

경매·공매는 정보 비대칭이 크고, 복잡한 권리관계와 명도, 법적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비효율’이 곧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주안동 다세대(경매), 여수 화장동 아파트(경매), 서울 영등포 도시형생활주택(경매) 등은 입지, 권리분석, 예상 수익률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한 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물건은 감정가 대비 70% 이하의 가격에 낙찰받아, 리모델링 후 임대·매각 등 다양한 exit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공매의 경우, 인천 주안동 오피스텔(공매)은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저평가된 물건을 선점했습니다. 공매는 경매보다 경쟁률이 낮고 절차가 간소해, 투자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정보 부족과 권리분석의 어려움이 크므로, 현장 실사와 전문가 자문을 병행했습니다.

일반매매의 신속성과 안정성

인천 도화동 오피스텔(일반매매)은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매입·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중개사를 통한 내부 확인, 임차인 명도 불필요, 빠른 소유권 이전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했습니다.

NPL과 경매의 융합 전략

서울 성북동 다세대(경매+NPL)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을 확보하고,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복합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NPL 투자는 정보 비대칭, 법적 분쟁 등 리스크가 크지만, 감정가의 60% 수준에서 자산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 분석, 법률 검토, 명도 협상 등 복합적 역량이 요구됐습니다.

리스크 분산과 구조화된 실행

(주)일트의 투자 방식은 ‘분산’과 ‘구조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 지역 분산: 인천, 서울, 경기, 부산, 여수 등 전국 주요 도시의 다양한 유형 부동산에 투자해 지역별 리스크를 분산했습니다.
- 투자 방식 다각화: 경매, 공매, 일반매매, NPL 등 다양한 매입 전략을 병행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 Exit 전략 다중화: 매각, 임대, 리모델링, 법적 회수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exit 전략을 사전에 설계해, 단일 전략 실패 시에도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부산 서면 근처 오피스텔 - 단기임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

현장 중심 분석과 실행의 중요성

실제 투자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현장’이었습니다. 온라인 정보와 데이터 분석도 중요하지만, 현장 실사와 직접적 경험이 투자 성공률을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서면 오피스텔(경매)은 현장 방문을 통해 예상보다 높은 임대 수요와 리모델링 가능성을 확인했고, 낙찰 이후 단기임대 운영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했습니다.

시장 변화에 맞춘 유연한 운용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정책 변화로 인해 단기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주)일트는 단순 매입이 아니라, ‘운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명도, 리모델링, 임대 전략, 법적 회수 가능성 등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수익률을 극대화했습니다.

정보 비대칭을 기회로

공매, NPL 등 복잡한 구조의 물건일수록 정보 비대칭이 크고,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주)일트는 시장에서 외면받는 ‘어려운’ 물건을 집중적으로 분석·선별해, 실행력과 구조화 능력으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프롭테크, AI 기반 분석 등 최신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론: 판을 짜는 투자, 실행으로 증명하다

(주)일트의 실제 투자 사례는 단순한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화된 설계’, ‘현장 중심 실행’, ‘리스크 분산’이 성공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시장이 위축된 지금, 정보와 실행력이 결합된 투자 전략만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도 (주)일트는 현장 중심의 실전 경험과 구조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꿈! 행사를 통해 즐기는 특별한 어린이날! - JIKS 초등 어린이날 행사 -

제103회 어린이 날을 맞아 2025년 5월 5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에서는 초등과정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가 열렸다.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학생들을 위해 교장, 교감 선생님이 직접 인형 옷을 입고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간식을 각 교실에 직접 전달하였다.

나래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교장선생님께서 재미있는 어린이날 탄생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한 초등과정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인도네시아 서커스팀(‘Team Febri Happy’)을 섭외하여 1시간 동안 초등 전교생이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는 신기한 마술쇼를 보고 마술쇼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2부에서는 저글링, 접시 돌리기, 외발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서커스 쇼를 관람하고 참여하였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동영상으로만 보았던 마술과 서커스를 직접 보고 참여하여 신기하였고 특별한 어린이날을 보내게 되어 즐거웠다는 반응이었다.

종교법(Hukum Agama) (2)

(전호에서 계속)

6. 종교 건물(교회당, 사원, 사당, 회관 등) 건축에 관한 법

종교 건물 건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단체장의 대리인 직무 시행 지침에 관한 종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2006년 제8호/제9호

6.1. 주 및 시/군에 민간단체로 종교인 화합 협의회(Forum Kerukunan Umat Beragama/FKUB)을 결성한다.

6.1.1. 주(도) FKUB의 임무

6.1.1.1. 주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자와 대화를 한다.

6.1.1.2.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망을 경청한다.

6.1.1.3.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6.1.1.4. 주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총화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6.1.2. 시/군 FKUB의 임무

6.1.2.1. 시/군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자와 대화를 한다.

6.1.2.2.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망을 경청한다.

6.1.2.3.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6.1.2.4. 시/군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통합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6.1.2.5. 종교 건물 건축 신청에 대하여 서면 추천을 한다.

6.1.3. FKUB의 구성

6.1.3.1. 주 FKUB의 인원은 최다 21명, 시/군 FKUB의 인원은 최다 17명으로 한다.

6.1.3.2. 주, 시/군 종교 인구 분포 비율로 FKUB 인원을 구성하며 주, 시/군 내에 있는 종교(6대 종교에 한함)는 종교 당 최소 1(한)명의 FKUB 위원이 있어야 한다.

6.1.3.3. FKUB에 위원장 1(한)명, 부위원장 2(이)명, 서기 1(한)명 및 부서기 1(한)명을 두며, 호선 방법으로 선발한다.

6.2. FKUB의 직무 효율을 위해 주, 시/군에 FKUB 자문회를 구성한다.

6.2.1. FKUB 자문회의 임무

6.2.1.1.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를 위한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책 수립 지원

6.2.1.2.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와 관련하여 FKUB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지방 자치단체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6.2.2. 주 FKUB 자문회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6.2.2.1. 회장 : 부주지사

6.2.2.2. 부회장 :종교부 지방청장

6.2.2.3. 서기 : 주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6.2.2.4. 회원 :관련 기관장들

6.2.3. 시/군 FKUB 자문회원은 시장/군수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6.2.3.1. 회장 : 부시장/부군수

6.2.3.2. 부회장 :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

6.2.3.3. 서기 : 시/군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6.2.3.4. 회원 :관련 기관장들

6.2.4. 주, 시/군 FKUB 자문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주지사 규정으로 정한다.

6.3. 종교 건물 건축에 관한 사항

6.3.1. 종교 건물 건축은 해당 동/리/촌 지역 주민의 종교 분포에 근거하여 실제로 필요한 종교 건물 건축을 조건으로 하며, 종교 건물 건축이 해당 지역 주민 간의 화합, 안녕과 공공질서를 문란케해서는 안 되며 관계 법규에 저촉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해당 동/리/촌 종교인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 시/군 혹은 주 경계선 주민의 분포를 참고로 한다.



6.3.2. 종교 건물은 행정 구비 요건 및 건축물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6.3.3. 종교건물 건축은 상술한 행정구비 요건과 기술요건 이외에 다음의 특별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6.3.3.1. 종교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주민 최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등록증을 지역 관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6.3.3.2. 종교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육십)명의 동의서.

6.3.3.3.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서면 추천서

6.3.3.4. 시/군 FKUB의 서면 추천서

6.3.3.5. 종교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주민 최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등록증을 지역 관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했으나 종교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 (육십)명의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교건물 건축 부지가 마련되도록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3.3.7. FKUB의 추천서는 FKUB 위원 간의 합의 후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6.3.4. 종교건물 건축 허가 신청은 종교건물 건축 위원회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90(구십)일 이내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4. 종교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 건물로 임시 사용 허가 절차

6.4.1. 종교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건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6.4.2. 신청서 구비 요건

6.4.2.1. 신청서

6.4.2.2. 건물주의 사용 동의서

6.4.2.3. 동/리장의 서면 추천서

6.4.2.4. 시/군 FKUB에 보고서

6.4.2.5.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에게 서면 보고서

6.4.3. 임시 사용허가서 발급 요건

6.4.3.1.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소견서

6.4.3.2. 시/군 FKUB의 소견서

6.4.4. 임시사용허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2(이)년이며 발급권한을 Camat(구청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2025 임원회비 납부명단

기준 : 2025.1.1 ~ 2025.5.28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1	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300,000,000
2	명예회장	승은호	PT. KORINDO GROUP	150,000,000
3	명예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150,000,000
4	명예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150,000,000
5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100,000,000
6	명예고문	마용도	PT. YONGMA	100,000,000
7	명예고문	송창근	PT. KMK GROUP	100,000,000
8	고문	김영을	PT. SUNG CHANG INDONESIA	75,000,000
9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75,000,000
10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75,000,000
11	고문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75,000,000
12	고문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75,000,000
13	고문	이기홍	PT. TIMUR Satria PERKASA	75,000,000
14	수석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150,000,000
15	수석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150,000,000
16	수석부회장	이지완	PT. JIN YOUNG	150,000,000
17	부회장	강수한	PT. CHAEUM DESIGN	75,000,000
18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75,000,000
19	부회장	구형희	PT. SHINHAN BANK	75,000,000
20	부회장	김응철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75,000,000
21	부회장	김재홍	PT. DAE IN TECH INDONESIA	75,000,000
22	부회장	서윤석	PT. PRATAMA ABADI INDUSTRI	75,000,000
23	부회장	승범수	PT. TSE GROUP	75,000,000
24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75,000,000
25	부회장	이승수	PT. SINYOUNG ABADI	75,000,000
26	부회장	이우열	PT. KB BANK	75,000,000
27	부회장	장윤하	PT. HARINDO	75,000,000
28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75,000,000
29	부회장	최재혁	PT. HILON INDONESIA	75,000,000
30	부회장	최지훈	PT. TIGA WIJAYA SUKSES	75,000,000
31	부회장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ITL)	75,000,000
32	자문위원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20,000,000
33	자문위원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20,000,000
34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20,000,000
35	자문위원	김주철	PT. STAR CAMTEX	20,000,000
36	자문위원	김재훈	PT. BNG AKUNTAN INDONESIA	20,000,000
37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20,000,000
38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20,000,000
39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20,000,000
40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000,000
41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20,000,000
42	자문위원	하연수	PT. SEOLIN NIAGATAMA	20,000,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43	자문위원	하재수	PT. ROYAL PUSPITA	20,000,000
44	이 사	강용복	PT. SIN SUNG INDONESIA	15,000,000
45	이 사	강형구	PT. TUGU INSURANCE BROKERS	15,000,000
46	이 사	권용숙	PT. JIPYONG SOUTH ASIA	15,000,000
47	이 사	김민수	PT. PARK LAW FIRM	15,000,000
48	이 사	김상규	PT. OK CONSULTING	15,000,000
49	이 사	김영주	PT. SAINT JAMES	15,000,000
50	이 사	김일태	PT. OROM	15,000,000
51	이 사	남궁훈	PT. HANWHA LIFE INSURANCE INDONESIA	15,000,000
52	이 사	박광를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5,000,000
53	이 사	박남형	PT. APLUS LOGISTIK	15,000,000
54	이 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5,000,000
55	이 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5,000,000
56	이 사	성예식	PT. F1-LOGIX	15,000,000
57	이 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5,000,000
58	이 사	송진은	PT. KMK GROUP	15,000,000
59	이 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5,000,000
60	이 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5,000,000
61	이 사	양호정	PT. KISWIRE INDONESIA	15,000,000
62	이 사	오동훈	PT. FNS TRANS BUANA	15,000,000
63	이 사	원은재	PT. ACCESS MOBILE INDONESIA	15,000,000
64	이 사	이성삼	PT. LIGA SEJATI SEJAHTERA	15,000,000
65	이 사	장영관	PT. LAYCO	15,000,000
66	이 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5,000,000
67	이 사	최희정	PT. MULTI SOLUSI NUSANTARA	15,000,000
68	이 사	홍기호	PT. AURORA WORLD CIANJUR	15,000,000
69	이 사	홍종서	PT. ARION TECH INDONESIA	15,000,000
70	이 사	한지훈	PT. GLOBAL ALPHA LOGISTIC	15,000,000
71	이 사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15,000,000
72	사무총장	임성필	PT. LSP INDONESIA	15,000,000

2025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입순

번호	성 명	금액(IDR)
1	허소영	300,000
2	임성필	300,000
3	이정숙	300,000
4	박희도	300,000
5	최지은	300,000
6	천향진	300,000
7	송재선	1,000,000
8	김예진	300,000
9	신진섭	300,000
10	No Name	300,000
11	김경희	300,000

번호	성 명	금액(IDR)
12	김규리	300,000
13	차윤재	300,000
14	최인실	300,000
15	김윤진	300,000
16	이지선	500,000
17	박재걸	300,000
18	류재철	300,000
19	홍예지	300,000
20	이지선	500,000
21	이지선	500,000
22	백현채	500,000

번호	성 명	금액(IDR)
23	최석일	500,000
24	강희중	500,000
25	배선묵	500,000
26	구수진	500,000
27	이지선	500,000
28	강현구	500,000
29	이지선	500,000
30	이영미	500,000
31	김근수	500,000
32	이윤정	500,000
33	홍석영	500,000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신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짜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 4497/7203 356
사랑유치원	8351540
하나유치원	844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가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웰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해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New Seoul Dental Clinic 0857 1917 9388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뿔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뻬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고포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뽕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썸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독뽕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매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무궁화 꼬망점 021 722 7214
 무궁화 찌뿌뜨라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라베뉴점 0852 8279 9647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한나아시안슈퍼마켓 085313645332

● 식당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강남 0812 2323 5119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던

Since 1994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강남스타일	2952 8443
깜닭	4584 5837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다운 코리안 그릴 & 다이닝	3825 0900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도마 식당	0858-5555-6510
대가	8459 2871
대가야	547 551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루 짬뽕전문점	0851 8277 2578
미스터 박	5140 1142
방앗간(분식, 케이터링)	0813 8521 1474
버카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삼원가든	2988 9505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상하이	5573 5550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산들	5579 5821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까복	3005 16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서라벌	3825 0401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새마을 식당	0852 1506 1211
소래포구	8990 5051
수하루	5577 8585
숙달	0821-4007-7256
아리수	0254-781 0059
양대팔	0856 9226 9933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용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유가네 2221 3392
연안수산 0811 8880 1374
우다움 세노파티 0811 1001 3571
예원 021-7212-0533
이차돌 0811 1838 310
정원 레스토랑 0852 1158 0507
주막 0821 7210 0452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찬찬 0812-1060-4848
청기와 0858 1377 3388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토박 725 113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한마당 5577 6770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남동 0819 9994 099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 8787 4928
글로벌 케이터링 8977 4174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로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콕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JASMIN HAIR SALON

Jasmin Hair Salon 1 (한국 미용실)
Darmawangsa Square 1F G46 Jakarta Selatan
영업시간 09:00~19:00 Tlp. 021 7280 0019/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현지 샬롱)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0225

Jasmin Hair Studio 3 (맛사지, 네일 전문점)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6530
Darmawangsa Square GF (Studio 2 G40, Studio 3 G54)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2 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شط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	----------

오롬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 882 1462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Suhada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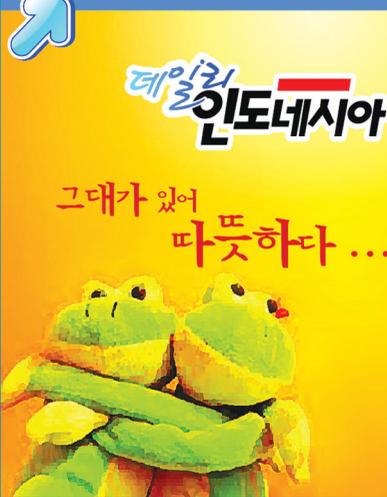


김균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 <기독교>
-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 찌뜨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등

- 반등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 반등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 반등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 반등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갈리만탄

-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터미날3)	8082 2198/9	크라운플라자	526 8833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솔탄	573 8011
	0804 1807 807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자바 팔레스	2928 1111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환전	
● 호텔		굿-머니	5793 9990
그랜드멜리아	526 808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만다린	314 1407	끌라빠가징	453 1166
물리아	574 7777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샹그릴라	570 7440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싸이드자야	570 4444	뚜나스신암	797 6105
하야트	390 1234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서중일고(박광호) 0817 46 1111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에블렛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HP. +62-816-873-176, +62-816-1390-333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E-mail. 3spearl@hanmail.net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료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수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김 종 현	0811-837-386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박 성 대	0811-126-323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 한인회	회장	한 준 석	0812-1006-0965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 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이 동 진	0811-218-604
		사무차장	이 덕 환	0812-2017-838
7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사무국장	최 효 순	0812-303-5940
9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형 기	0857-4706-9713
		사무총장	우 원 필	0812-283-2238
11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www.sticorp.co.kr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PSG

CEP

ST International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SBS

DONGHAE

SIMS

MINTEC

Yeong Yang Wind Power

SRT

SRT

ABM

KIDECO